



연구보고서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진면 · 한정민 · 김재진 · 이용호 · 김바우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책임연구자】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KIET 산업거시경제 단기 계량전망모형 개발 연구
산업연구원, 2013(공저)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산업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한정민 산업연구원 연구원
김재진 산업연구원 연구원
이용호 산업연구원 연구원
김바우 산업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행일 2013년
저자 이진면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한디자인(02-2269-9917)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83-3 93330

제출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산업연구원 원장 김도훈



발간사 <<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며,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파급영향 가운데 미시적 측면에 주목하여 가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계의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가구구조 및 규모, 가구의 연령별·산업별 소비를 전망하였으며,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인구고령화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이진면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한정민, 김재진, 이용호, 김바우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연구원의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고령화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사업계획, 혹은 가계의 소비계획 수립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13년 12월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목 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0
제3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내용	13
제2장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17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17
제2절 가구구조 변화	22
제3절 가구전망 방법론 이해	25
제4절 시나리오별 가구 전망	28
제3장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와 전망	45
제1절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	45
제2절 가계의 산업별 소비 전망방법	60
제3절 시나리오별 가계소비 전망	62
제4장 가계소비의 산업별 파급 영향	83
제1절 분석방법론	83
제2절 산업별 총산출 파급 영향	84
제3절 산업별 부가가치 파급 영향	90

제4절 산업별 고용 파급 영향 96

제5장 결론 105

제1절 분석결과 요약 10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07

참고문헌 111

부록 115

표 목차

〈표 2- 1〉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추이	18
〈표 2- 2〉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추계 인구 가정 비교	19
〈표 2- 3〉 중위 시나리오 성장시 추계인구(2010~2030)	20
〈표 2- 4〉 고위 시나리오 성장시 추계인구(2010~2030)	21
〈표 2- 5〉 저위 시나리오 성장시 추계인구(2010~2030)	22
〈표 2- 6〉 가구주 연령별 가구구조 변화추이	24
〈표 2- 7〉 중위 시나리오 성장시 대상인구(2010~2030)	30
〈표 2- 8〉 고위 시나리오 성장시 대상인구(2010~2030)	31
〈표 2- 9〉 저위 시나리오 성장시 대상인구(2010~2030)	32
〈표 2-10〉 가구주 연령별 가구주율 추계(2010~2030)	36
〈표 2-11〉 중위 시나리오의 가구전망	38
〈표 2-12〉 고위 시나리오의 가구전망	39
〈표 2-13〉 저위 시나리오의 가구전망	40
〈표 3- 1〉 12대 비목별 소비지출변화 추이	46
〈표 3- 2〉 산업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추이(1)	48
〈표 3- 3〉 산업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추이(2)	49
〈표 3- 4〉 농림어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50
〈표 3- 5〉 제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51
〈표 3- 6〉 전력·가스·증기·수도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55
〈표 3- 7〉 서비스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56
〈표 3- 8〉 시나리오별 산업별 소비지출 전망(1)	64
〈표 3- 9〉 시나리오별 산업별 소비지출 전망(2)	65
〈표 3-10〉 전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66
〈표 3-11〉 농림어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68
〈표 3-12〉 제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69

〈표 3-13〉 식료품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0
〈표 3-14〉 의복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1
〈표 3-15〉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2
〈표 3-16〉 자동차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3
〈표 3-17〉 의약품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3
〈표 3-18〉 전력·가스·증기·수도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4
〈표 3-19〉 서비스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5
〈표 3-20〉 음식점 및 숙박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6
〈표 3-21〉 교육서비스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7
〈표 3-22〉 통신서비스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8
〈표 3-23〉 주거서비스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8
〈표 3-24〉 의료 및 보건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79
〈표 4- 1〉 4대 산업 생산유발효과 전망	86
〈표 4- 2〉 제조업 생산유발효과 전망	87
〈표 4- 3〉 서비스업 생산유발효과 전망	89
〈표 4- 4〉 4대 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망	91
〈표 4- 5〉 제조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망	92
〈표 4- 6〉 서비스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망	95
〈표 4- 7〉 4대 산업 고용유발효과 전망	97
〈표 4- 8〉 제조업 고용유발효과 전망	98
〈표 4- 9〉 서비스업 고용유발효과 전망	100

그림 목차

[그림 2- 1] 평균 수명 추이	25
[그림 2- 2] 초혼 연령 추이	25
[그림 2- 3] 가구주올법을 이용한 가구추계 과정	27
[그림 2- 4]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장래가구의 추계절차	29
[그림 2- 5] 시나리오별 대상인구 전망 비교	33
[그림 2- 6] 시나리오별 추계인구 및 대상인구의 전망치 비교(2010~2030)	33
[그림 2- 7] 시나리오별 전체 가구 수 전망 비교	41
[그림 2- 8] 시나리오별 고령가구전망 비교	41
[그림 3- 1] 가계의 산업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47
[그림 3- 2] 식품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52
[그림 3- 3] 의복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53
[그림 3- 4] 석유 및 석탄제품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53
[그림 3- 5] 자동차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54
[그림 3- 6] 의약품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54
[그림 3- 7] 음식점·숙박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57
[그림 3- 8]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58
[그림 3- 9] 통신서비스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58
[그림 3-10] 대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59
[그림 3-11] 주거서비스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59
[그림 3-12] 가계의 산업별 소비지출 전망절차	61
[그림 4- 1] 파급효과 전망 절차	84

부록 목차

〈부록 1〉 가계동향조사 가계지출 부문 항목분류 체계(2009 기준)	115
〈부록 2〉 KIET78산업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비목 연계표	116
〈부록 3〉 KIET78부문 가계소비지출 비중 변화	118
〈부록 4〉 산업별 가계소비지출 비중 변화	119
〈부록 5〉 산업별 소비지출 비중 전망	127
〈부록 6〉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금액	143
〈부록 7〉 가구주 연령별 생산유발효과(경상)	143
〈부록 8〉 가구주 연령별 생산유발효과(불변)	144
〈부록 9〉 가구주 연령별 부가가치유발효과(경상)	144
〈부록 10〉 가구주 연령별 부가가치유발효과(불변)	145
〈부록 11〉 가구주 연령별 고용유발효과	145

Abstract <<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Consumption Structure and Industrial Production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by aging population on household consumption and industrial production, focusing on microeconomics. To do that, this research conducts projections for household structure toward 2030 reflecting to the three types of population growth scenarios(High, Medium, and Low) reported by Statistics Korea. After that, we project a household consumption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previous consumption pattern by age groups and industries through integrating projection of household structure. Adding to that, we also utilized I/O model to verify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between consumption structure and industrial production/employment.

Briefly speaking the projection on household consumption, consumption in manufacturing, SOC, and service industry except primary industries would be more affected by aging population under the High scenario which is the highest rate of elderly people than other scenarios.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food and beverage and coal and petroleum products industry in manufacturing sector and accommodation and food

2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service, medical and health service and owner-occupied housing service in service sector show the relatively large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scenarios due to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sensitively reacting to the aging population.

According to economic ripple effects of household consumption on industrial production and employment,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in service industry could be larger than manufacturing industry by some slight difference. In the part of employment, inducement effects in service industry could be bigger than manufacturing industry. Hereafter the employ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would see small losses, while service industry would have higher employment leading the labor market.

Specifically, consumer industries such as food and beverage and clothing industry and coal and petroleum products industry,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light and heat expenses in housing among manufacturing industry would be greatly influenced by changes in household consumption. Among service industry, wholesale and retail, food and accommodation, insurance and housing service industries, which are correlated with private consumption would see profound effects of household consumption. Furthermore, medicine and medical instrument in manufacturing sector and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and personal service in service sector are showing different results by each scenario, which seems to be because they are affected a lot by population aging.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인구구조는 낮은 출산율과 지속적인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의 하락, 부양 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전통적 가족구조의 파괴나 개인주의의 확산 등 경제 및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잡한 구조로 파급되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초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는 연령별 소비구조가 일률적이지 않은 관계로 그 영향력이나 방향성이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파급영향 가운데 미시적 측면에 주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 가구구조의 변화 →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 산업별 생산 및 고용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일련의 파급과정을 인구성장 시나리오별로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통계청에서 전망한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가계의 소비지출을 전망한 결과, 총지출규모에서는 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에 대한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력·

4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스·증기·수도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위 시나리오의 소비지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고위 시나리오에서 인구 및 가구 수와 고령층 가구주의 비중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주요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제조업부문에서 의약품, 식료품, 석유 및 석탄제품 등이, 서비스업부문에서는 의료 및 보건, 주거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업 등이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령화의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산업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가계소비지출이 산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근소한 차이로 제조업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나리오별 전망에서 제조업 생산유발규모의 차이는 미미하게 나타나 제조업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한국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에서도 서비스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제조업과 농림어광업, SOC 등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하지만 서비스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가 과반을 넘어 향후 서비스업 부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에 따르면, 농림어광업은 전산업 평균대비 고위와 저위 모든 시나리오에서 낮은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위의 감소폭이 저위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SOC는 고위의 경우 전산업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위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광업과 SOC는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전체 가구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산업 대비 고위와 저위 모든 시나리오에서 크게 예측되었으며, 제조업 부문은 전산업 평균에 비해 고위에서 다소 작은 것으로, 저위에서 다소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부업종별 특성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식음료, 의복 등의 소비재 업종과 석탄 및 석유제품과 같이 주택 광열비용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서,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도소매, 음식·숙박, 보험, 주거서비스 등 민간 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업종에서 가계 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서비스업 부문의 의료 및 보건, 대개인서비스 등에서 시나리오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첫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서비스업의 성장은 고용창출과 내수확대로 인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하지만 내수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 할 경우, 인구 증가의 정체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대외 의존형 생산, 수출 구조의 개편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둘째, 제조업 부문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의료 및 보건, 대개인 서비스 등이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산업은 이미 고령친화산업으로 분류되어 다수의 연구와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산업들은 고령화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경제전반에서 진전되고 있는 서비스

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서비스업 부문이 고용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여 고용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개인서비스 등 보건·사회복지 부문에서 비교적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수출 주력 제조업 부문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고령층과 청·장년층을 연계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제조업 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넷째,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초래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아닌 산업·경제적 시각과 복지의 시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고령화를 바라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우므로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하며, 그 효과가 몇 세대에 걸쳐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내용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낮은 출산율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90년 220만 명에서 2010년에 550만 명으로 지난 20년간 2.5배가 증가하였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에서 11%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더욱이 통계청 전망에 의하면 중위 시나리오에 입각할 경우 고령인구는 2030년 1,269만 명으로 증가하여 총인구 대비 비중이 24%로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인구규모의 양적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하락, 부양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전통적 가족구조의 파괴나 개인주의의 확산 등 경제 및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경제적인 측면만을 놓고 볼 때도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잡한 구조로 파급되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초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파급경로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1인당 교육비 증대에 따른 인적자본의 축적 증가나,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증대 등의 긍정적 요인도 상존한다.

더욱이 산업적 측면에서는 연령별 소비구조가 일률적이지 않은 관계로 그 영향력이나 방향성이 상이할 수 있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는 소비주체로서 경제활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구의 양적 및 연령별 구조 변화를 초래하여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산업생산의 변화를 이끌게 된다. 그런데 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시간과 연령에 따라 항상 일률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산업별로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고령인구가 선호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른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논의¹⁾가 부상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파급영향 가운데 미시적 측면에 주목하여 가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계의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 → 가구구조의 변화 →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 산업별 생산 및 고용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일련의 파급과정을 인구고령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 및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비 및 산업생산에 있어서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및 전망 결과는 고령화 관련 정부의 정책수립이나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혹은 가계의 소비계획 수립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한 분석은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거시 경제적 파

1) 2006년에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는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고령친화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급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가계소비나 산업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²⁾

인구고령화와 가계소비의 관계는 초창기 인구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하락하고, 전체 소비는 증가한다는 생애주기가설(life cycle-permanent income hypothesis)³⁾에 입각한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예비적 저축이론(precautionary saving theory)에 의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상반된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⁴⁾

또한 이러한 거시 경제적 접근과는 달리 미시 경제적 차원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는 시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특히 연령층별로 일정한 패턴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⁵⁾ 이것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요구조의 변화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별 생산물에 따라 파급영향의 정도가 상이하며, 더욱이 방향성도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적으로 인구고령화가 가계의 소비구조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⁶⁾

첫째는 가구주의 연령을 고려한 가계소비함수를 추정하여 가구주의 연령변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구주의 연

2)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파급경로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기존연구의 결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이진면 외(2012)의 제2장을 참조하기 바람.

3) Modigliani and Brumberg(1954), Ando and Modigliani(1963) 등에 의해 주장된 가설로서 생애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은 소득발생과 소비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축과 차입을 적절히 이용한다는 것임.

4) Carroll(1997, 2001), Munnell and Sunden(2003) 등이 대표적임.

5) 대표적 연구로는 Börsch and Supan(2003), Lührmann(2005), Wakabayashi (2001, 2002) 등을 들 수 있음.

6) 본 내용은 이진면 외(2012)의 제2장에서 기술된 내용을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요약 정리한 것임.

령변화를 전망하여 가계소비의 구조변화를 전망하는 방법이다. 해외의 경우 Lührmann(2005), 국내에서는 김동석(2004)이 이러한 방식에 기초하여 인구고령화의 가계소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요시스템(demand system)을 이용하여 가계소비 함수를 추정하는데, 모형 내에서 포함할 수 있는 소비항목의 수적 제약으로 인하여 소비의 세부항목별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는 가계소비의 구조변화와 산업연관모형을 연계하여 인구고령화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는 Dewhurst(2006), Paula and João(2010) 등이, 국내에서는 황상필(2009)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인구고령화가 가계소비의 변화를 통해 산업별로 파급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OLG(Computable Overlapping-generations), 거시경제-산업연계 계량모형 등 일반균형모형의 틀 내에서 인구고령화의 소비 및 산업별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Volz(2008)은 정태적 CGE모형을, Fougere et al. (2007), Nabil et al.(2008) 등은 동태적 OLG모형을, Yano and Kosaka(2007), 이진면 외(2012) 등이 동태적 거시-산업연계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인구고령화의 소비 및 산업별 영향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있어서 수요 및 공급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파급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형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방법에 입각하여 인구고령화의 소비구

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 한다. 즉, 가계소비의 구조변화를 가구주 연령별 및 세부 소비품목별 관점에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구구조의 변화 및 가구주 연령별 가계소비의 변화를 전망 한 후, 이를 산업연관모형과 연계하여 산업별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전망 시나리오별로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수 및 가계소비를 전망하고, 여기에 산업연관계수를 적용하여 인구전망 시나리오별로 산업별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다소 미흡했던 인구고령화의 미시 경제적 및 산업별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김동석(2004)에서 구체화하지 못했던 인구고령화의 가구구조 및 산업별 생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황상필(2009)의 한계인 가계의 세부항목별 소비구조 및 산업별 영향분석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진면 외(2012)에서 명시화하지 못한 인구고령화와 가구주 연령별 가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파급되는 산업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내용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산업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성과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구전망을 실시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인구통계와 추계인구 자료를 기반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추이와 전망을 검토하고, 현재 통계청에서 가구 전망에 이용하고 있는 가구주율법을 적용하여 인구 성장 시나리오별 가구전망을 수행한다.

둘째,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산업별, 가구주 연령별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전망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의 기본 단위인 가계의 소비구조를 산업별, 가구주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더불어 가구의 소비를 가구당 평균 소비와 전체 민간소비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분석 및 전망을 실시한다. 가계 소비구조 전망결과와 민간소비지출 전망(이진면 외 (2012))을 통합하여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가계의 소비지출을 전망한다.

셋째, 앞서 전망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소비구조변화가 산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우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통해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한다. 그리고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 산업별로 계측하고 비교·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향후 연구방향으로 제시한다.



제2장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와 전망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제2절 가구구조 변화

제3절 가구전망 방법론 이해

제4절 시나리오별 가구 전망



2

인구 및 가구구조의 << 변화와 전망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1. 인구구조 변화추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총인구 증가율의 둔화와 급격한 고령인구의 비중 확대를 보이고 있다. 총인구는 1990년 4,339만 명에서 4,799만 명으로 1990년대 연평균 0.6% 증가에서 2000년대 0.4%로 둔화되었다.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는 1990년 1,100만 명에서 2010년 798만으로 감소하여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25.6%에서 2010년 16.1%로 축소되었고, 연평균 감소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90년 220만 명에서 2010년 550만 명으로 증가하여 비중이 5.1%에서 11.1%로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향후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가속은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와 같은 고령화 관련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청장년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1990년 7.4%에서 2010년 15.2%로 상승하였고,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1990년 20.0%에서 2010년 68.6%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처럼 고령화 관련 지표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고령화의 체감 속도는

18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인구수			비중			연평균 증가율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91~00	01~10
계	43,390	45,985	47,991	100.0	100.0	100.0	0.6	0.4
15세 미만	11,134	9,639	7,787	25.7	21.0	16.2	-1.4	-2.1
15 - 19세	4,449	3,692	3,438	10.3	8.0	7.2	-1.8	-0.7
20 - 24세	4,396	3,848	3,055	10.1	8.4	6.4	-1.3	-2.3
25 - 29세	4,334	4,097	3,539	10.0	8.9	7.4	-0.6	-1.5
30 - 34세	4,208	4,093	3,695	9.7	8.9	7.7	-0.3	-1.0
35 - 39세	3,201	4,187	4,099	7.4	9.1	8.5	2.7	-0.2
40 - 44세	2,539	3,996	4,131	5.9	8.7	8.6	4.6	0.3
45 - 49세	2,177	2,952	4,073	5.0	6.4	8.5	3.1	3.3
50 - 54세	2,010	2,350	3,798	4.6	5.1	7.9	1.6	4.9
55 - 59세	1,623	1,968	2,767	3.7	4.3	5.8	1.9	3.5
60 - 64세	1,157	1,789	2,182	2.7	3.9	4.5	4.5	2.0
65세 이상	2,162	3,372	5,425	5.0	7.3	11.3	4.5	4.9
65 - 69세	900	1,376	1,812	2.1	3.0	3.8	4.3	2.8
70 - 74세	595	918	1,566	1.4	2.0	3.3	4.4	5.5
75세 이상	667	1,078	2,046	1.5	2.3	4.3	4.9	6.6
노년부양비	7.4	10.1	15.2	-	-	-	3.2	4.2
노령화지수	20.0	34.3	68.6	-	-	-	5.5	7.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 인구구조 전망

통계청은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에 일련의 가정을 도입한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s method)을 이용하여 향후 인구성장 및 구조적 변화를 추계하였다. 코호

트요인법이란 인구변동요인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의 시발점이 되는 성·연령별 기준인구에 출산과 국제순이동을 더하고, 사망을 차감하는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에 의해 다음해의 인구를 산출하는 추계방법이다. 통계청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출생, 사망, 및 국제이동 등의 인구변동요인의 장래 수준을 중위·고위·저위의 성장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3가지 인구변동요인과 3가지 가정을 조합한 총27개(3×3×3)의 시나리오 중 인구성장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3가지 시나리오를 중위, 고위, 저위로 선정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였다.⁷⁾

〈표 2-2〉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추계 인구 가정 비교

인구변동요인		중위 시나리오	고위 시나리오	저위 시나리오
출산력 (합계출산율)	2010년	1.23명		
	2045년	1.79명	1.42명	1.01명
사망력 (기대수명)	2010년	남자: 77.20세 여자: 84.07세		
	2060년	남자: 89.09세 여자: 92.53세	남자: 86.59세 여자: 90.30세	남자: 83.64세 여자: 87.81세
국제이동 (국제순이동률)	2010년	82 천명		
	2060년	82 천명	23 천명	-2 천명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보도자료, p.22-31 재정리.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전망인 중위 시나리오의 인구전망을 살펴보면, 총인구 규모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2010년대 0.4%에서 2020년대 0.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30년 1,269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7) 통계청(2011)의 p.20, p32를 참조함.

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1%에서 2030년 24.3%까지 늘어나 인구 네 명중 한 명이 고령인구가 될 전망이다. 고령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2010년대 4.0%, 2020년대 4.6%로 총인구 증가율을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 중위 시나리오 성장시 추계인구(2010~2030)

구분	추계인구수(천명)			비중(%)			연평균증가율(%)	
	2010	2020	2030	2010	2020	2030	11-20	21-30
계	49,410	51,435	52,160	100.0	100.0	100.0	0.4	0.1
19세 이하	11,443	9,242	8,811	23.2	18.0	16.9	-2.1	-0.5
20 - 24세	3,210	3,225	2,259	6.5	6.3	4.3	0.0	-3.5
25 - 29세	3,792	3,577	2,527	7.7	7.0	4.8	-0.6	-3.4
30 - 34세	3,866	3,268	3,257	7.8	6.4	6.2	-1.7	0.0
35 - 39세	4,262	3,767	3,524	8.6	7.3	6.8	-1.2	-0.7
40 - 44세	4,240	3,817	3,208	8.6	7.4	6.2	-1.0	-1.7
45 - 49세	4,267	4,221	3,727	8.6	8.2	7.1	-0.1	-1.2
50 - 54세	3,885	4,211	3,799	7.9	8.2	7.3	0.8	-1.0
55 - 59세	2,791	4,226	4,202	5.6	8.2	8.1	4.2	-0.1
60 - 64세	2,202	3,797	4,155	4.5	7.4	8.0	5.6	0.9
65세 이상	5,452	8,084	12,691	11.0	15.7	24.3	4.0	4.6
65 - 69세	1,847	2,658	4,086	3.7	5.2	7.8	3.7	4.4
70 - 74세	1,558	1,995	3,531	3.2	3.9	6.8	2.5	5.9
75 - 79세	1,087	1,527	2,289	2.2	3.0	4.4	3.5	4.1
80 - 84세	590	1,094	1,469	1.2	2.1	2.8	6.4	3.0
85세 이상	370	810	1,316	0.7	1.6	2.5	8.1	5.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고위 시나리오의 경우는 총인구가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609만 명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10년대 0.7%에서 2020년대 0.5%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545만 명에서 1,360만 명으로 중위 시나리오보다 다소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30년 24.2%로 중위 시나리

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연평균증가율은 2010년대 4.4%, 2020년대 4.9%로 중위 시나리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고위 시나리오 성장시 추계인구(2010~2030)

구분	추계인구수(천명)			비중(%)			연평균증가율(%)	
	2010	2020	2030	2010	2020	2030	11-20	21-30
계	49,410	53,176	56,090	100.0	100.0	100.0	0.7	0.5
19세 이하	11,443	10,102	10,737	23.2	19.0	19.1	-1.2	0.6
20 - 24세	3,210	3,233	2,265	6.5	6.1	4.0	0.1	-3.5
25 - 29세	3,792	3,622	2,566	7.7	6.8	4.6	-0.5	-3.4
30 - 34세	3,866	3,341	3,355	7.8	6.3	6.0	-1.4	0.0
35 - 39세	4,262	3,856	3,677	8.6	7.3	6.6	-1.0	-0.5
40 - 44세	4,240	3,897	3,369	8.6	7.3	6.0	-0.8	-1.4
45 - 49세	4,267	4,298	3,903	8.6	8.1	7.0	0.1	-1.0
50 - 54세	3,885	4,278	3,958	7.9	8.0	7.1	1.0	-0.8
55 - 59세	2,791	4,289	4,358	5.6	8.1	7.8	4.4	0.2
60 - 64세	2,202	3,854	4,300	4.5	7.2	7.7	5.8	1.1
65세 이상	5,452	8,405	13,602	11.0	15.8	24.2	4.4	4.9
65 - 69세	1,847	2,703	4,234	3.7	5.1	7.5	3.9	4.6
70 - 74세	1,558	2,040	3,684	3.2	3.8	6.6	2.7	6.1
75 - 79세	1,087	1,581	2,428	2.2	3.0	4.3	3.8	4.4
80 - 84세	590	1,158	1,613	1.2	2.2	2.9	7.0	3.4
85세 이상	370	923	1,643	0.7	1.7	2.9	9.6	5.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총인구가 2010년 4,941만 명에서 2020년 4,982만 명으로 증가하나 2030년에는 4,827만 명으로 감소하여, 연평균증가율은 2010년대 0.1% 수준에서 2020년대에는 감소 추이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30년 1,178만 명으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하며, 총인구 대비 비중이 2010년 11%에서 2030년 24.4%로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22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편, 고령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2010년대 3.6%, 2020년대 4.3%로 총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나,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표 2-5〉 저위 시나리오 성장시 추계인구(2010~2030)

구분	추계 인구수(천명)			비중(%)			연평균증가율(%)	
	2010	2020	2030	2010	2020	2030	11-20	21-30
계	49,410	49,824	48,268	100.0	100.0	100.0	0.1	-0.3
19세 이하	11,443	8,452	6,754	23.2	17.0	14.0	-3.0	-2.2
20 - 24세	3,210	3,217	2,252	6.5	6.5	4.7	0.0	-3.5
25 - 29세	3,792	3,533	2,490	7.7	7.1	5.2	-0.7	-3.4
30 - 34세	3,866	3,203	3,168	7.8	6.4	6.6	-1.9	-0.1
35 - 39세	4,262	3,692	3,393	8.6	7.4	7.0	-1.4	-0.8
40 - 44세	4,240	3,751	3,074	8.6	7.5	6.4	-1.2	-2.0
45 - 49세	4,267	4,159	3,584	8.6	8.3	7.4	-0.3	-1.5
50 - 54세	3,885	4,155	3,670	7.9	8.3	7.6	0.7	-1.2
55 - 59세	2,791	4,173	4,072	5.6	8.4	8.4	4.1	-0.2
60 - 64세	2,202	3,745	4,027	4.5	7.5	8.3	5.5	0.7
65세 이상	5,452	7,744	11,783	11.0	15.5	24.4	3.6	4.3
65 - 69세	1,847	2,613	3,944	3.7	5.2	8.2	3.5	4.2
70 - 74세	1,558	1,946	3,371	3.2	3.9	7.0	2.2	5.6
75 - 79세	1,087	1,467	2,140	2.2	2.9	4.4	3.0	3.8
80 - 84세	590	1,022	1,315	1.2	2.1	2.7	5.6	2.5
85세 이상	370	694	1,014	0.7	1.4	2.1	6.5	3.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제2절 가구구조 변화

보통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가구(家口)는 소비를 주도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이다. 이러한 가구의 양적 및 질적 변화는 소비구조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산업생산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 주

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는 1990년 약 1,136만 가구에서 2010년 약 1,734만 가구로 증가하였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2.3%에서 2000년대 1.9%로 소폭 둔화되는 추세이다. 출산율 저하의 영향으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것과 반대로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은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수가 줄어들어 따른 가구구조의 소형화에 기인한다. 가구주 연령별 가구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 고령층 가구주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경우 1990년 96만 가구에서 2000년 173만 가구로, 그리고 2010년 311만 가구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평균 증가율이 1990년대 6.1%, 2000년대 6.0%로 전체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인 1990년대 2.3%, 2000년대 1.9%를 큰 폭 상회하고 있다.

고령 가구주 내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70-74세인 가구가 1990년 전체 가구의 2.4%에서 2010년 5.4%로 확대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6.1%, 2000년대 6.5%로 증가하였다. 75세 이상의 가구의 비중은 1990년 전체 가구의 1.8%에 불과했으나 2010년 6.3%로 3배 이상 확대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8.0%, 2000년대 9.3%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 연령별 가구 중 가장 높은 증가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1990년 71.4세, 2010년 80.6세)과 출산율 하락(1990년 1.57명, 2010년 1.23명)으로 인하여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 가구주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표 2-6〉 가구주 연령별 가구구조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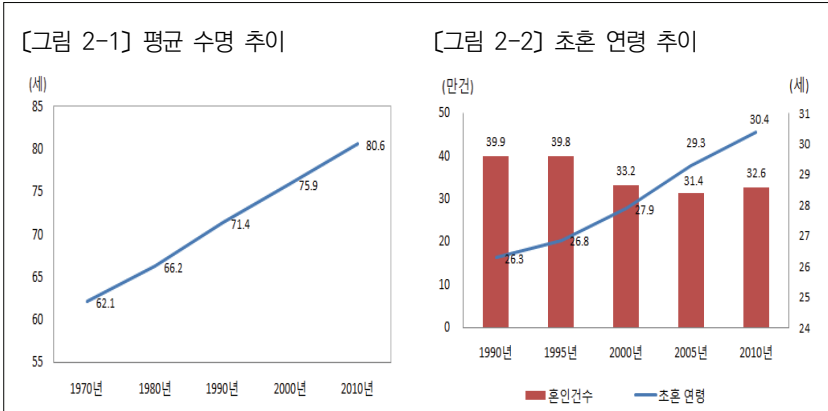
(천 가구, %, %)

구분	전체 가수 수			비중			연평균 증가율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91~00	01~10
계	11,355	14,312	17,339	100.0	100.0	100.0	2.3	1.9
15세 미만	3	1	0	0.0	0.0	0.0	-6.3	-22.5
15 - 19세	88	78	68	0.8	0.5	0.4	-1.1	-1.4
20 - 24세	359	353	384	3.2	2.5	2.2	-0.2	0.9
25 - 29세	1,162	1,003	918	10.2	7.0	5.3	-1.5	-0.9
30 - 34세	1,849	1,713	1,443	16.3	12.0	8.3	-0.8	-1.7
35 - 39세	1,614	2,075	1,926	14.2	14.5	11.1	2.5	-0.7
40 - 44세	1,375	2,148	2,159	12.1	15.0	12.5	4.6	0.1
45 - 49세	1,218	1,659	2,273	10.7	11.6	13.1	3.1	3.2
50 - 54세	1,151	1,363	2,171	10.1	9.5	12.5	1.7	4.8
55 - 59세	930	1,148	1,602	8.2	8.0	9.2	2.1	3.4
60 - 64세	644	1,035	1,286	5.7	7.2	7.4	4.9	2.2
65세 이상	963	1,734	3,111	8.5	9.7	12.1	6.1	6.0
65 - 69세	478	785	1,078	4.2	5.5	6.2	5.1	3.2
70 - 74세	276	499	939	2.4	3.5	5.4	6.1	6.5
75세 이상	209	451	1,094	1.8	3.1	6.3	8.0	9.3
연령미상	0	1	0	0.0	0.0	0.0	-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한편 20대 이하 가구주의 가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한 30대 초반 가구주의 가수 수는 감소세가 가속되고 있으며, 30대 후반의 경우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20-30대 가구주의 가수 수가 감소하는 것은 청년층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초혼 연령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대되고, 육아나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 등으로 전통적인 결혼관이 퇴색하였으며, 취업률 하락에 따른 경제

적 불안감 확대가 젊은 세대의 만혼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사료된다.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앞서 살펴본 가구구조의 변화는 특정 연령 혹은 시기에 발생하는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3절 가구전망 방법론 이해

가계소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기본단위인 가구(家口)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구 및 가구 통계의 근간인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를 한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고 일반가구, 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⁸⁾

8) 가구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 통계자료설명 홈페이지(<http://meta.narastat.kr>)의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용어설명을 인용한 것이며, 가구분류에서 일반가구는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

이러한 가구의 장래 규모나 구조를 전망하는 가구추계방법은 정태적 방법(static method)과 동태적 방법(dynamic method)으로 대별된다. 정태적 방법은 독립적으로 추계된 인구의 구성비나 비율에 따라 가구에 인구를 할당하여 추정하는 것이며, 동태적 방법은 가구 상태 간의 변화나 전환을 내생적으로 측정하여 장래가구를 추계하는 것이다.⁹⁾ 현재 통계청은 정태적 방법인 가구주율법(Headship Rate method), 즉 성 및 연령 별 인구 중 가구주가 되는 비율인 가구주율의 과거추이를 수학적 궤도(trajjectory)를 이용하여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장래가구를 추계하고 있다. 이 가구주율법은 1930년 미국의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실시한 이후 계산 과정이 쉽고 필요한 자료가 단순하다는 장점을 토대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장래가구추계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⁰⁾ 가구주율법은 인구의 연령구조의 변화와 같이 가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민감하여 인구와 가구의 변화가 빠른 우리 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

통계청은 2012년에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의 결과에 가구주율법을 적용하는 [그림 2-3]과 같은 절차에 입각하여 2035년까지의 장래가구를 추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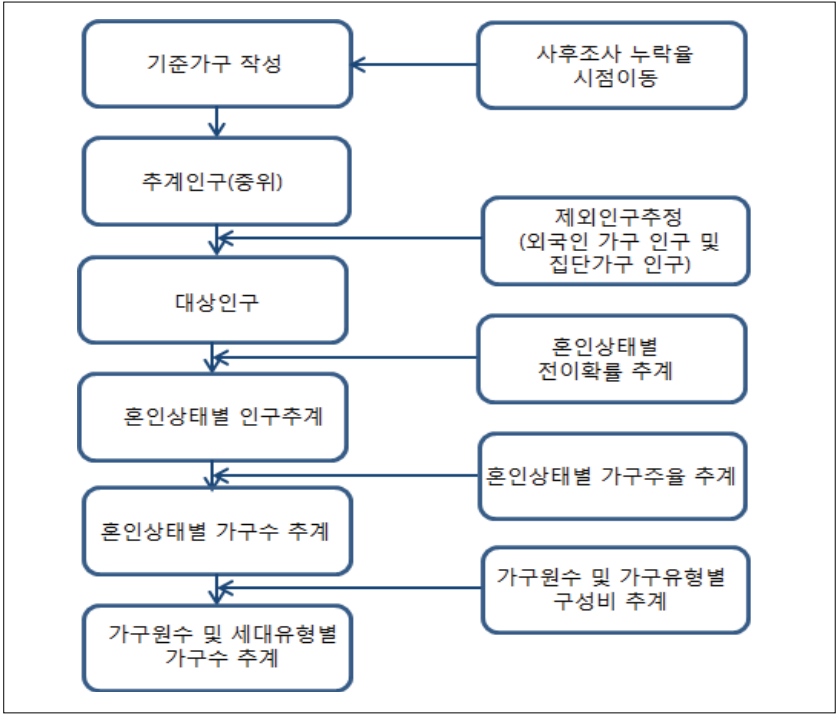
어져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혈연가구와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비혈연의 5인 이하 가구 및 혼자서 살림하는 1인 가구를 그 범주로 하며, 집단가구는 혈연관계가 없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의 시설 내에서 생활 하고 있는 집단시설가구와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 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비혈연의 6인 이상 가구를, 외국인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이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취급함.

9) 김형석(2002)의 p.67 참조함.

10) 통계청 통계자료설명 홈페이지(<http://meta.narastat.kr>)의 장래가구추계를 참조하기 바람.

11)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형석(2002)을 들 수 있음.

[그림 2-3] 가구추출법을 이용한 가구추계 과정



자료: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 보도자료, p.38에서 인용.

기준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무응답 및 누락 가구를 보정하고, 기준시점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일인 11월 1일에서 인구추계 기준일인 7월 1일로 변경하여 작성하였다. 추계인구는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여기서 외국인가구와 집단가구에 속하는 인구를 제외한 소위 일반가구 인구만을 대상인구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반 가구인구의 추계를 위해 통계청은 외국인 가구인구와 관련해서 1992~2010년 외국인 등록자료에 2000년 이후 다문화가구의 증가추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집단 가구인구와 관련해서는 2000~2010년 시설조사구, 특별 조사구 및 6인 이상 비친족가구의 인구

구성비 변화를 반영하여 각각에 대한 장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추계하고 인구 전망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통계청의 가구추계는 전체가구에서 외국인가구와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가구인구에 대해서 혼인상태별 전이확률, 가구주율 및 가구원수 및 가구유형별 구성비의 추계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가구원수 및 세대유형별 가수 수를 추계하고 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관계로 실제의 가수 수와 가구주율도 5년 간격으로 파악되므로 장래가구는 우선 5년 간격으로 추계하고, 내삽법(interpo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연도별 가구를 추정한다.

제4절 시나리오별 가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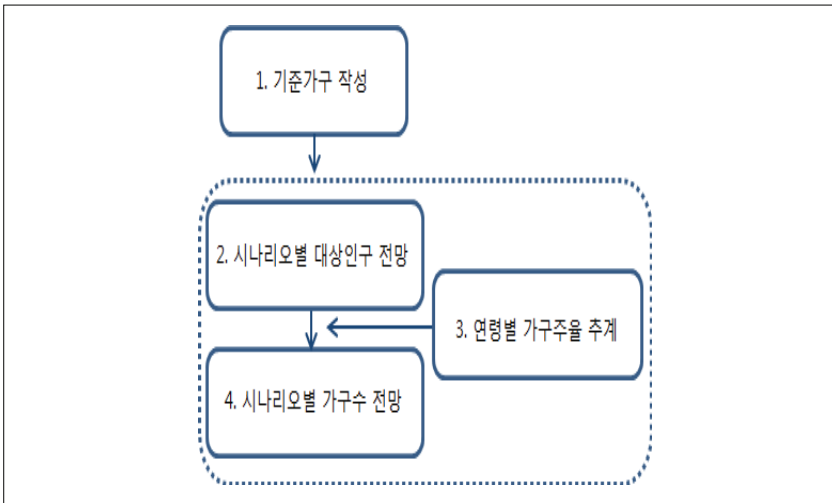
1. 시나리오별 대상인구 추계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가구구조의 변화가 가계의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는 장래인구추계 중에서 중위 시나리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고령화의 시나리오별 가구구조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계청의 가구주율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위 및 저위 인구성장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장래가구를 추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인구성장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를 반영한 추계인구 자료와 통계청이 설정한 기준가구의 정의에 따른 외국인 가구인구와 집단 가구인구에 대한 추계치를 이용하여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별 대상 인구를 전망하였다. 여기에 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가구주 연령별 가구주율의 장래 추계치를 적용하여 가구의 총규모와 연령별 구조를 전망한다. 업

밑하계는 인구성장의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별로도 외국인 가구인구와 집단 가구인구를 추계하여 대상 인구를 조정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인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의 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나 일반가구로의 전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가구주 연령별로 규칙적인 추이를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통계청이 인구성장의 중위 시나리오에 적용한 추계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2-4]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장래가구의 추계절차



인구성장 중위 시나리오에 의한 대상인구의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및 집단 가구인구를 제외한 가구추계의 총 대상 인구는 2010년 4,705만 명에서 2020년 4,805만 명, 2030년 4,874만 명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2010년대 0.2%에서 2020년대 0.1%로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19만 명에서 2020년 755만 명, 2030년 1,186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010년대 3.8%,

3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20년대 4.6%로 전체 대상인구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대상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중이 2010년 11.0%에서 2030년 24.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7〉 중위 시나리오 성장시 대상인구(2010~2030)

구분	대상인구수(천명)			비중(%)			연평균증가율(%)	
	2010	2020	2030	2010	2020	2030	11-20	21-30
계	47,053	48,053	48,743	100.0	100.0	100.0	0.2	0.1
19세 이하	10,897	8,635	8,234	23.2	18.0	16.9	-2.3	-0.5
20 - 24세	3,056	3,013	2,111	6.5	6.3	4.3	-0.1	-3.5
25 - 29세	3,611	3,341	2,362	7.7	7.0	4.8	-0.8	-3.4
30 - 34세	3,682	3,053	3,043	7.8	6.4	6.2	-1.9	0.0
35 - 39세	4,059	3,519	3,293	8.6	7.3	6.8	-1.4	-0.7
40 - 44세	4,038	3,566	2,998	8.6	7.4	6.2	-1.2	-1.7
45 - 49세	4,063	3,943	3,483	8.6	8.2	7.1	-0.3	-1.2
50 - 54세	3,700	3,934	3,550	7.9	8.2	7.3	0.6	-1.0
55 - 59세	2,658	3,948	3,926	5.6	8.2	8.1	4.0	-0.1
60 - 64세	2,097	3,548	3,883	4.5	7.4	8.0	5.4	0.9
65세 이상	5,192	7,553	11,860	11.0	15.7	24.3	3.8	4.6
65 - 69세	1,758	2,484	3,818	3.7	5.2	7.8	3.5	4.4
70 - 74세	1,484	1,864	3,299	3.2	3.9	6.8	2.3	5.9
75 - 79세	1,035	1,427	2,139	2.2	3.0	4.4	3.3	4.1
80 - 84세	562	1,022	1,373	1.2	2.1	2.8	6.2	3.0
85세 이상	353	757	1,230	0.7	1.6	2.5	7.9	5.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계산

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총 대상 인구는 2010년 4,705만 명에서 2020년 4,980만 명, 2030년 5,267만 명까지 증가하며, 연평균증가율이 2010년대와 2020년대 모두 0.6%의 동일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는 2010년 519만 명에서 2020년 787만 명, 2030년 1,277만 명으로 중위 시나리오보다 다소 많을 전망이다. 고령인구의 비

중은 2010년 11.0%에서 2030년 24.2%로 중위 시나리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연평균증가율은 2010년대 4.3%, 2020년대 5.0%로 중위 시나리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고위 시나리오 성장시 대상인구(2010~2030)

구분	대상인구수(천명)			비중(%)			연평균증가율(%)	
	2010	2020	2030	2010	2020	2030	11-20	21-30
계	47,053	49,794	52,673	100.0	100.0	100.0	0.6	0.6
19세 이하	10,897	9,494	10,160	23.2	19.1	19.3	-1.4	0.7
20 - 24세	3,056	3,021	2,117	6.5	6.1	4.0	-0.1	-3.5
25 - 29세	3,611	3,387	2,401	7.7	6.8	4.6	-0.6	-3.4
30 - 34세	3,682	3,127	3,142	7.8	6.3	6.0	-1.6	0.0
35 - 39세	4,059	3,608	3,446	8.6	7.2	6.5	-1.2	-0.5
40 - 44세	4,038	3,646	3,159	8.6	7.3	6.0	-1.0	-1.4
45 - 49세	4,063	4,020	3,659	8.6	8.1	6.9	-0.1	-0.9
50 - 54세	3,700	4,001	3,709	7.9	8.0	7.0	0.8	-0.8
55 - 59세	2,658	4,011	4,082	5.6	8.1	7.8	4.2	0.2
60 - 64세	2,097	3,605	4,028	4.5	7.2	7.6	5.6	1.1
65세 이상	5,192	7,874	12,770	11.0	15.8	24.2	4.3	5.0
65 - 69세	1,758	2,529	3,966	3.7	5.1	7.5	3.7	4.6
70 - 74세	1,484	1,909	3,453	3.2	3.8	6.6	2.6	6.1
75 - 79세	1,035	1,480	2,278	2.2	3.0	4.3	3.6	4.4
80 - 84세	562	1,086	1,516	1.2	2.2	2.9	6.8	3.4
85세 이상	353	870	1,557	0.7	1.7	3.0	9.4	6.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계산

저위 시나리오의 경우는 총 대상 인구가 2010년 4,705만 명에서 2020년 4,644만 명, 2030년 4,485만 명으로 감소하여 연평균증가율은 2010년대 -0.1%, 2020년대 -0.3%로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인구는 2010년 519만 명에서 2020년 721만 명, 2030년 1,095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증가율은 2010년대 3.3%에서 2020년

32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 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0년 11.0%에서 2020년 15.5%, 2030년 2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 저위 시나리오 성장시 대상인구(201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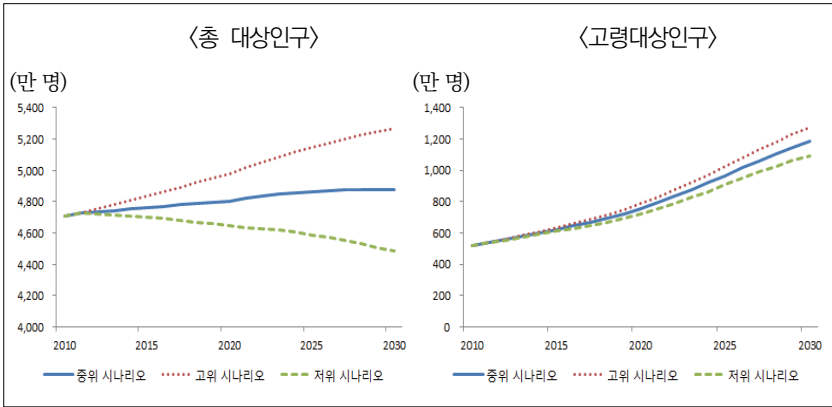
구분	대상인구수(천명)			비중(%)			연평균증가율(%)	
	2010	2020	2030	2010	2020	2030	11-20	21-30
계	47,053	46,442	44,851	100.0	100.0	100.0	-0.1	-0.3
19세 이하	10,897	7,844	6,177	23.2	16.9	13.8	-3.2	-2.4
20 - 24세	3,056	3,005	2,104	6.5	6.5	4.7	-0.2	-3.5
25 - 29세	3,611	3,298	2,324	7.7	7.1	5.2	-0.9	-3.4
30 - 34세	3,682	2,988	2,955	7.8	6.4	6.6	-2.1	-0.1
35 - 39세	4,059	3,445	3,163	8.6	7.4	7.1	-1.6	-0.9
40 - 44세	4,038	3,500	2,864	8.6	7.5	6.4	-1.4	-2.0
45 - 49세	4,063	3,881	3,340	8.6	8.4	7.4	-0.5	-1.5
50 - 54세	3,700	3,878	3,422	7.9	8.4	7.6	0.5	-1.2
55 - 59세	2,658	3,895	3,797	5.6	8.4	8.5	3.9	-0.3
60 - 64세	2,097	3,495	3,755	4.5	7.5	8.4	5.2	0.7
65세 이상	5,192	7,212	10,952	11.0	15.5	24.4	3.3	4.3
65 - 69세	1,758	2,439	3,676	3.7	5.3	8.2	3.3	4.2
70 - 74세	1,484	1,815	3,140	3.2	3.9	7.0	2.0	5.6
75 - 79세	1,035	1,367	1,990	2.2	2.9	4.4	2.8	3.8
80 - 84세	562	951	1,219	1.2	2.0	2.7	5.4	2.5
85세 이상	353	641	928	0.7	1.4	2.1	6.2	3.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계산

시나리오별로 대상인구의 전망결과를 비교하면, 총 대상 인구는 중위 시나리오에서 2010-20년 기간 중 100만 명, 2020-30년 동안 67만 명이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동기간 274만 명에서 288만 명이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까지 61만 명, 2030년까지는 159만 명이 감소하며,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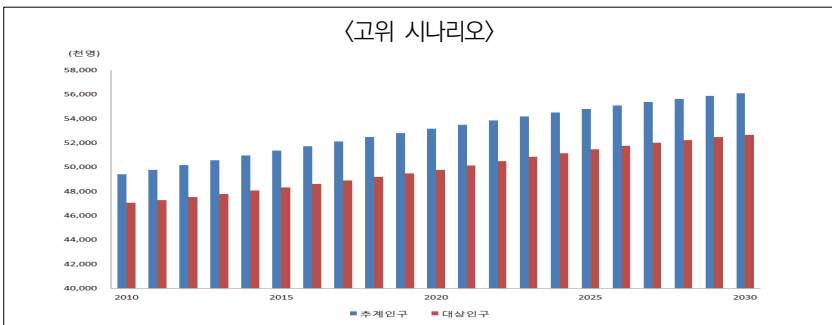
소폭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고령 대상 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가구의 증가를 시사하고 있다.

[그림 2-5] 시나리오별 대상인구 전망 비교



한편, 시나리오별 추계인구와 대상인구의 전망치를 비교하면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인구의 규모는 추계인구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난다. 각 시나리오별 추계인구를 100으로 볼 때 대상인구의 비율은 2010년 95.2에서 2030년 고위, 중위, 저위의 순으로 93.8, 93.2 및 92.5로 낮아져 추계인구와 대상인구의 차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림 2-6] 시나리오별 추계인구 및 대상인구의 전망치 비교(201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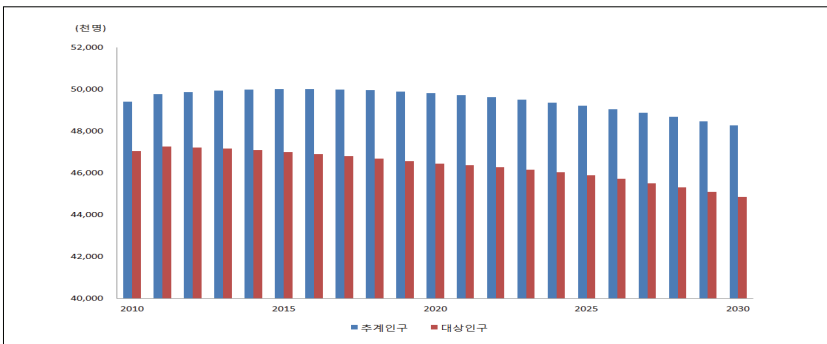


34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위 시나리오〉



〈저위 시나리오〉



3. 연령별 가구주율 추계

장래 가구주율에 대한 추계에는 일반적으로 수정지수식(modified exponential formula), 선형로그식(log-linear formula), 순전이율(net transition rate) 등이 이용되고 있다.¹²⁾ 통계청에서는 통상적으로 상기의 방정식들을 과거 인구총조사의 결과에 적용하여 예측값(predicted value)을 추정한 후, 이를 최근의 인구총조사를 통해 실제로 수집한 값

12) 안해일(2008)의 연구내용을 참조함.

(observed value)과 비교하여 편차가 가장 작은 방법을 선정하여 장래 가구주율을 산출해왔다.

통계청이 2012년에 실시한 장래가구추계에서는 2000-10년 총조사 가구주율 추이를 기초로 2011-35년까지의 가구주율을 성·연령·혼인상태 별로 추계하였다. 또한 최근의 혼인패턴 및 가구구성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모형과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수정지수모형, 선형 로그, 로지스틱, 단일변수시계열 모형 등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정지수모형을 채택하였다.¹³⁾

$$h_{m,x,t} = d + ab^{c_t}$$

$h_{m,x,t}$: 혼인상태 m , 연령 x , 연도 t 의 가구주율

d : $h_{m,x,2010} > h_{m,x,2000}$ 인 경우 1

$h_{m,x,2010} < h_{m,x,2000}$ 인 경우 0

a : $h_{m,x,2000} - d$

b : $(h_{m,x,2010} - d)/(h_{m,x,2000} - d)$

c_t : $(t - 2000)/(2010 - 2000)$

상기의 수정지수모형에 의거하여 장래가구주율의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표 2-10>에서와 같이 청년층과 노년층 가구주율의 주도로 전체 가구주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연령대의 평균 가구주율은 2010년 36.9%에서 2030년 44.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구성원 수가 작아지는 소위 가구의 소형화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3) 통계청(2012)의 p42를 참조함.

36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표 2-10〉 가구주 연령별 가구주율 추계(2010~2030)

(단위 : %)

구분	2010	2020	2030	편차(%p) (2030-2010)
계	36.9	41.4	44.6	7.7
19세 이하	0.6	0.7	0.7	0.1
20 - 24세	16.0	20.8	24.9	8.9
25 - 29세	26.5	29.1	32.7	6.2
30 - 34세	39.7	38.5	37.8	-1.9
35 - 39세	47.1	44.8	43.2	-3.8
40 - 44세	52.9	51.7	50.6	-2.2
45 - 49세	54.7	52.5	52.1	-2.7
50 - 54세	56.6	55.3	55.0	-1.6
55 - 59세	58.5	58.5	60.2	1.7
60 - 64세	59.5	59.6	61.2	1.7
65 - 69세	59.4	60.7	61.2	1.7
70 - 74세	60.9	62.6	63.9	3.0
75 - 79세	60.0	65.3	65.4	5.4
80 - 84세	55.9	65.4	68.4	12.5
85세 이상	40.3	59.7	66.9	26.6

자료: 통계청 제공.

가구주의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50대 초반까지의 가구주율이 하락하는 반면, 20대와 70대 이상의 가구주율이 급격히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가구주율이 두 자리 이상으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 가구주가 증가하고, 특히 초고령 가구주 및 사별을 통한 1인 고령가구가 증가하는 인구고령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시나리오별 가구수 전망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장래가구추계는 앞에서 전망한 연령별 대상인구에 상기 가구주 연령별 가구주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H_{x,t} = P_{x,t} h_{x,t} \quad (x = 1, 2 \dots 15, t = 2013 \sim 2030 \text{년})$$

$H_{x,t}$ 는 t년도 연령(x)의 가구 수

$P_{x,t}$ 는 t년도 연령(x)의 대상인구

$h_{x,t}$ 는 t년도 연령(x)의 가구주율

본 소절에서는 상기의 수식에 의해 도출된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가구의 총규모와 가구주 연령별 구조를 전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⁴⁾ 장래가구의 전망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별로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층의 현저한 가구주율 상승으로 인해 고령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위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 가구수는 2010년 1,736만 가구에서 2030년 2,172만 가구로 2010년대 1.4%, 2020년대 0.9%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55세 이상 가구주는 증가하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는 2010년 309만 가구에서 2030년 769만 가구로 2.5배 증가하고 비중도 2010년 17.8%에서 2030년 35.4%로 2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2030년에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의 가구주가 65세 이상의 고령층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

14) 총대상인구에 전체평균 가구주율을 곱하여 산출한 총가구 수와 연령별 대상인구에 연령별 가구주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구 수의 합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후자를 통해 연령별 비중을 산출하여 전자의 총가구 수에 곱하는 방식을 적용함.

령층가구의 연평균증가율도 2010년대 4.5%, 2020년대 4.9%로 역시 전체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며, 특히 85세 이상 가구의 경우 동기간 11.3%, 6.2%의 현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표 2-11〉 중위 시나리오의 가구전망

구분	전체 가구 수(천가구)			비중(%)			연평균증가율(%)	
	2010	2020	2030	2010	2020	2030	11-20	21-30
계	17,359	19,878	21,716	100.0	100.0	100.0	1.4	0.9
19세 이하	69	64	60	0.4	0.3	0.3	-0.7	-0.6
20 - 24세	395	492	394	2.3	2.5	1.8	2.2	-2.2
25 - 29세	931	922	706	5.4	4.6	3.2	-0.1	-2.6
30 - 34세	1,467	1,163	1,129	8.4	5.9	5.2	-2.3	-0.3
35 - 39세	1,938	1,592	1,423	11.2	8.0	6.6	-1.9	-1.1
40 - 44세	2,176	1,876	1,522	12.5	9.4	7.0	-1.5	-2.1
45 - 49세	2,275	2,129	1,847	13.1	10.7	8.5	-0.7	-1.4
50 - 54세	2,146	2,245	2,001	12.4	11.3	9.2	0.5	-1.1
55 - 59세	1,594	2,408	2,457	9.2	12.1	11.3	4.2	0.2
60 - 64세	1,283	2,216	2,488	7.4	11.1	11.5	5.6	1.2
65세 이상	3,087	4,772	7,690	17.8	24.0	35.4	4.5	4.9
65 - 69세	1,080	1,580	2,453	6.2	7.9	11.3	3.9	4.5
70 - 74세	931	1,216	2,200	5.4	6.1	10.1	2.7	6.1
75 - 79세	632	946	1,426	3.6	4.8	6.6	4.1	4.2
80 - 84세	310	644	907	1.8	3.2	4.2	7.6	3.5
85세 이상	132	387	704	0.8	1.9	3.2	11.3	6.2

고위 시나리오의 가구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수는 2010년 1,736만 가구에서 2030년 2,347만 가구로 2010년대 1.7%, 2020년대 1.3%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의 가구 규모는 2010년 309만 가구에서 2030년 847만 가구로 2.7배 증가할 전망이다. 비중 역시 2010년 17.8%에서 2030년 36.1%로 2배 이상 확대되며, 동기간

연평균증가율은 5.0%, 5.3%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85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2010년대 14.9%, 2020년대 7.3%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2〉 고위 시나리오의 가구전망

구분	전체 가구 수(천가구)			비중(%)			연평균증가율(%)	
	2010	2020	2030	2010	2020	2030	11-20	21-30
계	17,359	20,599	23,467	100.0	100.0	100.0	1.7	1.3
19세 이하	69	72	76	0.4	0.3	0.3	0.3	0.6
20 - 24세	395	644	545	2.3	3.1	2.3	5.0	-1.7
25 - 29세	931	1,007	810	5.4	4.9	3.5	0.8	-2.2
30 - 34세	1,467	1,232	1,225	8.4	6.0	5.2	-1.7	-0.1
35 - 39세	1,938	1,654	1,538	11.2	8.0	6.6	-1.6	-0.7
40 - 44세	2,176	1,928	1,651	12.5	9.4	7.0	-1.2	-1.5
45 - 49세	2,275	2,160	1,968	13.1	10.5	8.4	-0.5	-0.9
50 - 54세	2,146	2,263	2,105	12.4	11.0	9.0	0.5	-0.7
55 - 59세	1,594	2,401	2,536	9.2	11.7	10.8	4.2	0.5
60 - 64세	1,283	2,199	2,545	7.4	10.7	10.8	5.5	1.5
65세 이상	3,087	5,039	8,469	17.8	24.5	36.1	5.0	5.3
65 - 69세	1,080	1,570	2,505	6.2	7.6	10.7	3.8	4.8
70 - 74세	931	1,223	2,279	5.4	5.9	9.7	2.8	6.4
75 - 79세	632	988	1,539	3.6	4.8	6.6	4.6	4.5
80 - 84세	310	726	1,070	1.8	3.5	4.6	8.9	4.0
85세 이상	132	531	1,076	0.8	2.6	4.6	14.9	7.3

저위 시나리오의 가구전망 결과, 전체 가구 수는 2010년 1,736만 가구에서 2030년 1,998만 가구로 2010년대 1.0%, 2020년대 0.4%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의 가구 수는 2010년 309만 가구에서 2030년 684만 가구로 2.2배 증가하고, 비중은 2010년 17.8%에서 2030년 34.2%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증가율은 전체 가구를 큰

4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폭 상회하여 2010년대 3.9%, 2020년대 4.2%로 높아질 전망이다. 85세 이상 초 고령층의 경우 동기간 11.2%, 4.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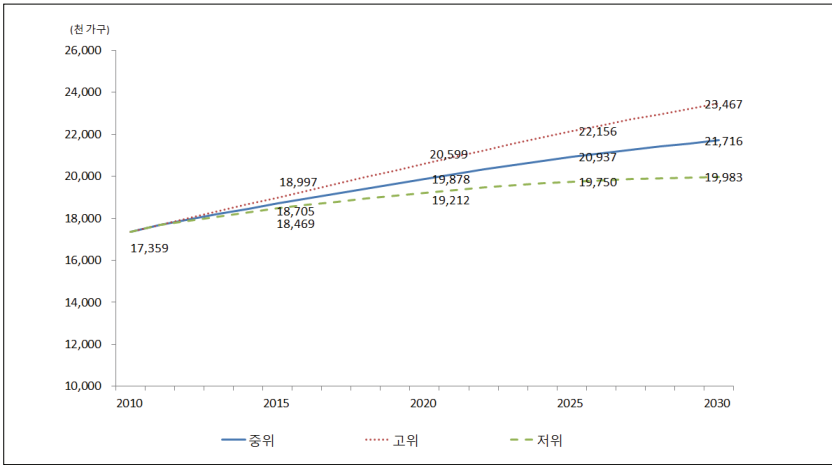
〈표 2-13〉 저위 시나리오의 가구전망

구분	전체 가구 수(천가구)			비중(%)			연평균증가율(%)	
	2010	2020	2030	2010	2020	2030	11-20	21-30
계	17,359	19,212	19,983	100.0	100.0	100.0	1.0	0.4
19세 이하	69	58	44	0.4	0.3	0.2	-1.8	-2.8
20 - 24세	395	626	511	2.3	3.3	2.6	4.7	-2.0
25 - 29세	931	959	741	5.4	5.0	3.7	0.3	-2.5
30 - 34세	1,467	1,152	1,089	8.4	6.0	5.4	-2.4	-0.6
35 - 39세	1,938	1,544	1,334	11.2	8.0	6.7	-2.2	-1.4
40 - 44세	2,176	1,809	1,415	12.5	9.4	7.1	-1.8	-2.4
45 - 49세	2,275	2,039	1,698	13.1	10.6	8.5	-1.1	-1.8
50 - 54세	2,146	2,145	1,836	12.4	11.2	9.2	0.0	-1.5
55 - 59세	1,594	2,280	2,230	9.2	11.9	11.2	3.6	-0.2
60 - 64세	1,283	2,085	2,243	7.4	10.9	11.2	5.0	0.7
65세 이상	3,087	4,515	6,843	17.8	23.5	34.2	3.9	4.2
65 - 69세	1,080	1,481	2,194	6.2	7.7	11.0	3.2	4.0
70 - 74세	931	1,137	1,958	5.4	5.9	9.8	2.0	5.6
75 - 79세	632	892	1,270	3.6	4.6	6.4	3.5	3.6
80 - 84세	310	622	813	1.8	3.2	4.1	7.2	2.7
85세 이상	132	383	606	0.8	2.0	3.0	11.2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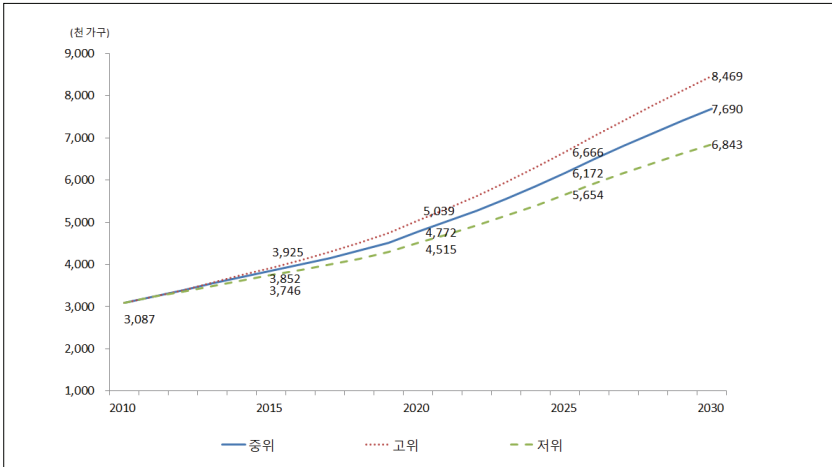
한편, 시나리오별 장래가구추계 결과를 비교하면 전체 가구 수는 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순으로 향후 20년 동안 각각 611만, 436만, 262만 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구 수의 증가는 대부분 고령층 가구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같은 기간 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별 고령층의 가구는 각각 538만, 460만, 376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중위와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고령층 가구의 증가가 전체 가구의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2-7] 시나리오별 전체 가구 수 전망 비교



[그림 2-8] 시나리오별 고령가구전망 비교







제3장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와 전망

제1절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

제2절 가계의 산업별 소비 전망방법

제3절 시나리오별 가계소비 전망



3

제3장 가계의 소비구조 << 변화와 전망

제1절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

1. 가계소비지출의 구조변화

가계소비지출(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은 일정기간 동안 가구에서 가구원의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한 대가로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¹⁵⁾ 이러한 가계소비지출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나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상 가계최종소비지출을 통해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전자는 가구당 평균적인 측면에서, 후자는 전체가계 측면에서 소비지출의 규모와 구조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⁶⁾

우선 가계동향조사의 12대 비목에 기초하여 가계소비지출의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가계소비는 식료품에 대한 지출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교통, 통신, 교육, 음식숙박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통상적으로 경제발전에 의해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가계소비지출 중 음식료품 등과 같이 필수적 소비지출의 비중인 앵겔지수(Engel's Coefficient)가 낮아지는 대신에 소비자가 구입시기와 구입량을 선택할

15) New 경제용어사전 참조.

16)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한 자료이며, 한국은행의 가계최종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모든 가계의 최종소비를 가공통계로 추계하는 것이며, 양자는 모든 UN이 권고하는 목적별 소비분류(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COICOP)에 입각하여 소비구조를 파악하고 있음.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의 가계소비구조도 소득이 증대되면서 점차 필수재의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의 소비패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 12대 비목별 소비지출변화 추이

(단위: %)

12대 비목	1990년	2000년	2010년
식료품	26.6	16.8	13.8
주류담배	1.5	1.4	1.2
의류신발	9.8	6.8	6.4
주거수도광열	10.0	10.2	10.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6.0	3.5	3.8
보건	6.3	5.5	6.6
교통	7.9	12.5	11.6
통신	2.2	5.2	6.0
오락문화	6.2	6.1	5.6
교육	8.2	11.2	13.3
음식숙박	8.2	12.7	12.9
기타	7.1	8.1	8.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러한 가계소비의 구조변화를 산업별 생산물과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세부항목을 KIET 78부문 산업 분류에 연계 작업을 실시하였다.¹⁷⁾ 연계작업 결과, 주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중간재 성격의 산업을 제외한 48개 산업이 가계소비의 지출항목과 연계가 가능하며, 농림어업, 제조업, 전력·가스·증기·수

17) 가계동향조사에서는 394개의 세부비용항목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진면 외(2012)에서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상 경제활동분류와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에 기초하여 전체 산업을 78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전자를 후자에 연계한 것이며, 그 결과는 부록에 게재함.

도, 서비스업의 4대 산업으로 재분류되었다.

가계의 평균소비지출의 구조변화를 4대 산업분류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과 전력·가스·증기·수도업에 대한 지출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농림어업, 제조업에 대한 지출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이다. 농림어업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은 1990년 16.6%에서 2000년 11.0%, 2010년 7.8%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소비지출비중 또한 1990년 41.5%에서 2000년 34.1%, 2010년 33.1%로 축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 지출 비중은 1990년 39.0%에서 2000년 50.5%로 큰 폭 확대되었고, 2010년 53.4%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전력·가스·증기·수도업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은 비교적 작지만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3-1] 가계의 산업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림어업 내에서는 작물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10.3%에서 4.3%로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고,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은 소폭 축소되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는 석유·석탄제품,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이 확대된 반면, 이외 생산물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산업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추이(1)

구분	산업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1990	2000	2010	91-00	01-10
농림어업	16.6	11.0	7.8	3.1	-0.7
작물	10.3	6.3	4.3	2.5	-1.3
축산물	3.5	2.6	2.0	3.8	-0.1
임산물	0.1	0.1	0.1	5.6	2.2
수산물	2.7	2.0	1.3	3.6	-1.5
제조업	41.5	34.1	33.1	6.5	1.6
식료품	7.9	6.1	6.2	4.3	2.6
음료품	1.3	1.1	1.2	5.2	3.6
담배	1.0	1.1	0.8	9.0	-0.4
섬유	1.1	0.6	0.4	0.3	-1.6
의복	8.0	5.6	5.3	2.2	2.0
가죽, 모피, 신발	1.5	1.0	1.2	4.3	4.3
펠프 및 종이	0.3	0.2	0.2	5.2	2.4
인쇄 및 복제	0.0	0.0	0.0	9.0	-3.2
석유 및 석탄제품	2.5	5.5	5.4	0.3	2.3
의약품	3.2	2.5	2.7	3.0	3.2
화학품	1.1	1.3	1.5	1.8	4.7
기타화학제품	0.1	0.1	0.0	5.9	-11.1
도기 및 자기제품	0.2	0.1	0.1	3.3	4.2
금속제품	0.4	0.3	0.2	5.0	0.0
가전	2.7	1.8	1.5	16.2	1.1
컴퓨터 및 사무기기	0.3	1.1	0.4	17.9	-7.8
전기기계 및 장치	0.1	0.1	0.1	6.5	1.9
의료기기	0.3	0.4	0.4	3.9	1.0
정밀기기	0.4	0.1	0.1	0.9	5.3
자동차	5.6	2.4	2.9	3.8	4.4
기타수송기계	0.1	0.1	0.1	7.9	1.1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3.4	2.7	2.3	5.9	0.9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편, 서비스업 내에서는 음식점·숙박업, 금융·보험, 주거서비스, 통신, 의료·보건, 사회복지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소비지출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표 3-3〉 산업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추이(2)

구분	산업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1990	2000	2010	91-00	01-10
전력·가스·증기·수도	2.9	4.4	5.8	12.4	3.8
전력	1.6	2.1	2.4	9.3	4.2
가스, 증기, 수도	1.3	2.3	3.3	11.9	6.3
서비스업	39.0	50.5	53.4	10.3	1.8
음식점·숙박업	7.4	11.4	11.9	0.4	2.9
운수·보관	3.9	4.1	3.3	7.6	0.5
금융·보험	1.5	1.6	2.4	11.4	6.9
주거서비스	4.4	5.0	7.1	7.8	6.0
부동산서비스	0.1	0.1	0.1	2.5	5.1
기계장비·용품임대	0.1	0.0	0.0	2.2	-11.8
출판서비스	1.5	1.3	0.9	6.0	-1.5
영화	0.1	0.1	0.2	-2.3	8.3
방송	0.2	0.4	0.5	16.4	4.9
통신	2.1	5.1	5.9	17.9	4.1
정보서비스	0.1	0.1	0.2	6.5	10.6
사업지원서비스	0.5	0.5	0.7	4.3	5.8
교육	8.0	8.8	8.0	10.2	1.5
의료·보건	3.0	4.1	5.0	10.3	4.6
사회복지사업	0.3	0.3	1.3	3.9	18.0
문화서비스	0.5	0.3	0.4	0.9	3.8
오락서비스	0.2	0.6	0.6	9.8	2.0
위생서비스	0.1	0.1	0.1	3.6	1.1
대개인서비스	4.9	6.4	4.7	7.9	-0.7
계	100.0	100.0	100.0	7.0	2.5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산업별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변화

(1) 농림어업

농림어업의 경우 1990년 50대, 2000년 이후부터는 60대의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소비지출비중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내는데, 청년층보다 고령층의 비중이 높으며, 청장년층의 경우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를 비롯하여 20대 가구주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중 소비지출이 큰 산업은 작물이며, 그 중 곡물에 대한 소비지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 3-4〉 농림어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구분	비중(%)				연평균 증가율(%)	
	1990	2000	2010	2010-1990	91-00	01-10
19세 이하	3.1	3.3	0.7	-2.4	5.7	-9.4
20~24세	4.6	3.8	2.5	-2.1	0.8	-4.3
25~29세	5.5	5.0	3.9	-1.6	1.6	-3.2
30~34세	6.4	5.7	5.4	-1.0	1.6	-1.5
35~39세	7.9	7.0	7.1	-0.8	1.8	-0.6
40~44세	8.9	7.9	8.2	-0.7	1.6	-0.4
45~49세	9.4	8.0	8.9	-0.5	1.2	0.1
50~54세	9.5	8.4	9.1	-0.4	1.7	-0.2
55~59세	9.1	8.6	9.7	0.6	2.3	-0.1
60~64세	9.3	8.5	10.0	0.7	3.7	0.5
65~69세	8.5	7.9	9.6	1.1	2.0	0.6
70~74세	5.8	6.5	8.6	2.8	1.7	-0.4
75~79세	8.1	7.0	6.8	-1.3	7.2	-1.3
80~84세	3.9	7.6	5.5	1.6	7.0	-3.6
85세 이상	-	4.7	3.9	3.9	-	-6.6
계	100.0	100.0	100.0	-	3.1	-1.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제조업

제조업에 대해서는 30대의 소비지출비중이 확대된 반면, 40대의 비중 변화는 미미하며, 50-70대의 비중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70-74세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들어 연평균증가율이 ‘-’를 보이고 있어 소비지출규모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제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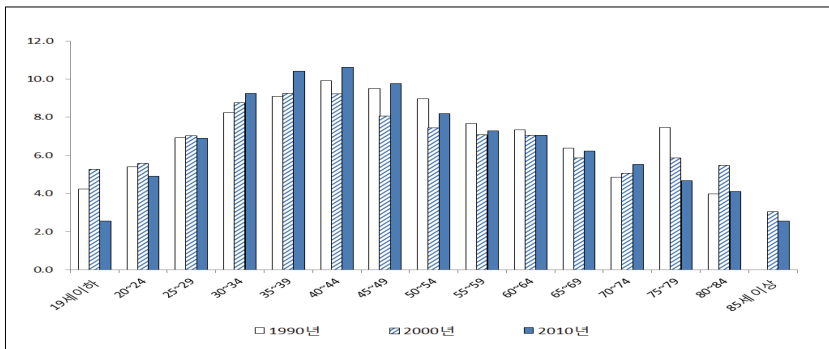
구분	비중(%)				연평균 증가율(%)	
	1990	2000	2010	2010-1990	91-00	01-10
19세 이하	3.6	4.3	1.9	-1.7	8.3	-2.4
20~24세	5.6	5.6	6.8	1.2	6.1	3.4
25~29세	7.9	7.4	8.5	0.6	7.3	1.9
30~34세	7.4	8.3	10.6	3.2	7.1	3.6
35~39세	8.5	9.0	10.7	2.2	6.3	3.6
40~44세	9.1	9.2	9.9	0.8	6.5	2.4
45~49세	9.4	8.1	9.9	0.5	4.2	2.7
50~54세	9.4	9.0	9.4	0.0	5.2	2.3
55~59세	9.0	8.4	8.2	-0.8	5.8	1.0
60~64세	8.9	7.4	6.5	-2.4	8.6	-0.6
65~69세	6.8	5.2	5.3	-1.5	3.4	-0.3
70~74세	4.9	4.3	4.2	-0.7	1.4	0.0
75~79세	7.0	4.6	3.2	-3.8	8.3	-1.9
80~84세	2.5	6.5	2.7	0.2	10.1	-1.2
85세 이상	-	2.7	2.3	2.3	-	-3.2
계	100.0	100.0	100.0	-	6.5	1.5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제조업 중 가계의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상위 5개 산업으로는 식료품, 의복, 석유 및 석탄제품, 자동차, 의약품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우선 식료품산업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40대의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동거 자녀 등으로 인한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생필품인 식료품은 소비 비중의 추이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제품 및 알, 당류 및 과자류, 빵 및 떡류 등이 높은 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 식료품 산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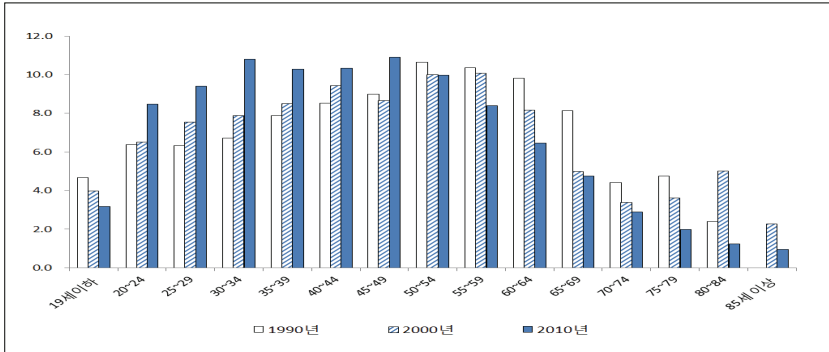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의복 산업에 대한 소비지출은 20-40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축소 추세이며, 세부 품목별로 여성용외의, 남성용외의 순으로 소비지출이 크다. 연령별 특징을 살펴보면, 20-40대 가구주의 경우 와이셔츠 품목의 소비가 두드러진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용외의 소비는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적 작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 의복 산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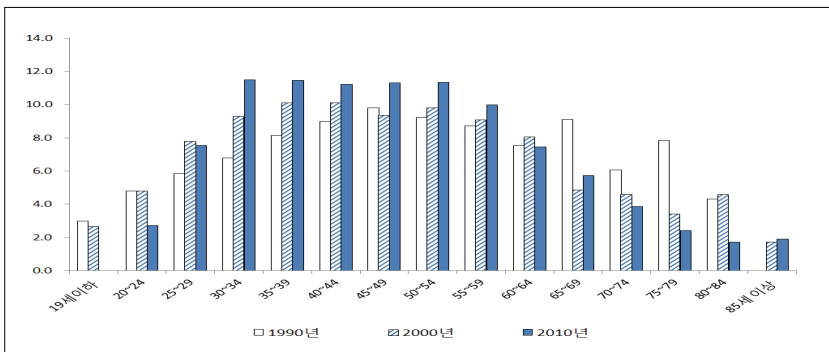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경우 20-30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운송기구연료비 품목에 대한 지출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가용 소유에 따른 소비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4]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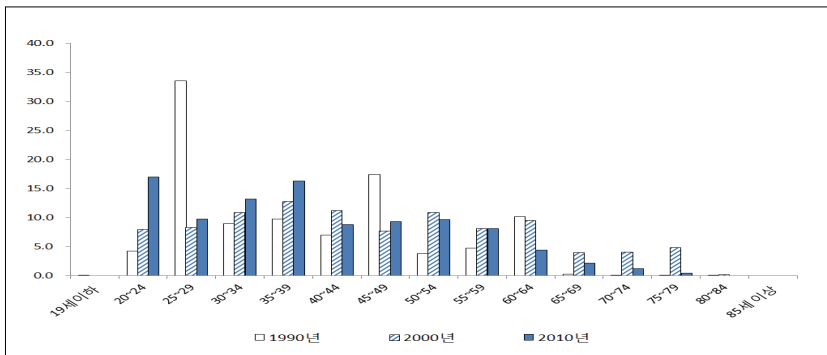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54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편 완성차 구입을 의미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소비지출은 주로 취업 직후인 25-29세부터 이루어지며, 고령층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약품 산업에 대한 소비지출은 30-65세까지는 비슷한 비중을 보이거나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70세 이상에서는 비중이 높으며,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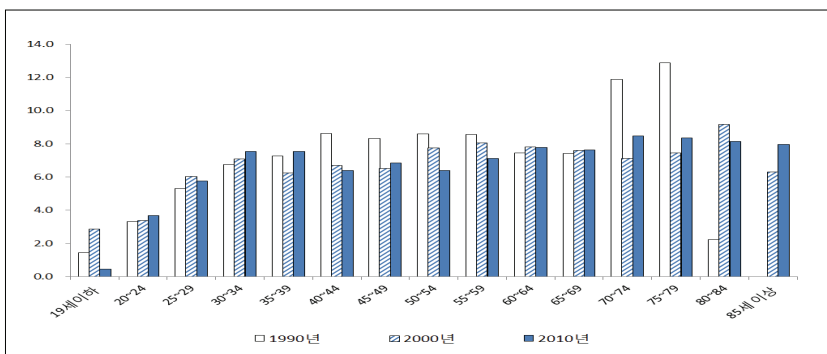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3-6] 의약품 산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 전력·가스·증기·수도 산업

전력·가스·증기·수도 산업은 20-40대의 비중이 소폭 확대되고, 50-70대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으나, 소비의 특성상 대부분 연령층에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료, 도시가스 순으로 소비지출이 크며, 전기료는 40대, 50대, 60대 순으로, 도시가스는 30, 40대, 50대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6〉 전력·가스·증기·수도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구분	비중(%)				연평균 증가율(%)	
	1990	2000	2010	2010-1990	91-00	01-10
19세 이하	3.9	3.8	1.7	-2.2	11.5	-0.3
20~24세	4.7	4.5	5.0	0.3	10.4	4.4
25~29세	5.6	6.3	6.5	0.9	12.8	3.7
30~34세	6.3	7.4	8.0	1.7	13.8	4.2
35~39세	7.5	8.3	9.0	1.5	12.9	4.6
40~44세	8.9	8.9	9.5	0.6	12.5	4.8
45~49세	9.1	8.6	9.5	0.4	11.4	5.1
50~54세	9.0	8.5	8.9	-0.1	11.3	4.5
55~59세	8.5	8.1	8.4	-0.1	10.9	4.1
60~64세	8.6	7.9	7.4	-1.2	12.6	2.8
65~69세	7.0	7.2	6.9	-0.1	12.0	3.3
70~74세	6.6	5.6	6.0	-0.6	8.9	3.1
75~79세	11.4	6.4	5.2	-6.2	13.7	4.0
80~84세	3.0	5.8	4.6	1.6	15.2	1.8
85세 이상	-	2.7	3.4	3.4	-	-6.9
계	100.0	100.0	100.0	-	12.4	3.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 서비스업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지출에서 30-40대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50대 후반 이상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연평균증가율은 1990년대 10%를 상회하는 현저한 증가세를 기록한 후, 2000년대에는 1.5%의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까지 청장년층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

〈표 3-7〉 서비스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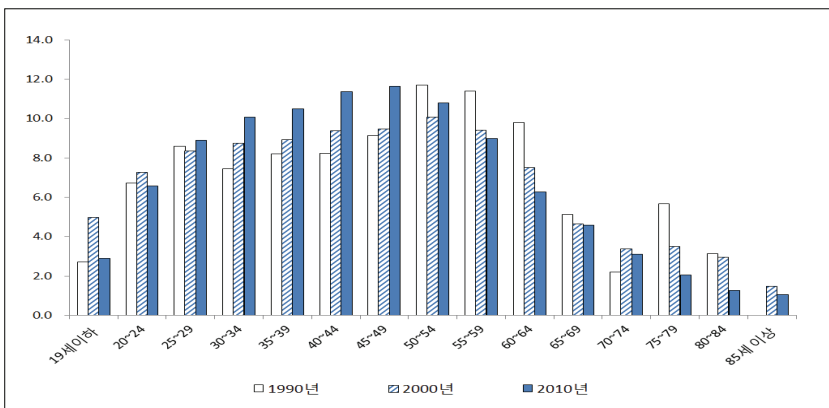
구분	비중(%)				연평균 증가율(%)	
	1990	2000	2010	2010-1990	91-00	01-10
19세 이하	5.3	5.5	3.4	-1.9	11.0	-1.1
20~24세	6.0	6.8	5.7	-0.3	11.1	-0.3
25~29세	6.1	6.7	7.5	1.4	10.6	2.3
30~34세	6.0	7.2	9.2	3.2	11.2	3.2
35~39세	7.3	8.1	10.4	3.1	10.3	3.7
40~44세	8.8	9.1	11.4	2.6	9.8	3.6
45~49세	9.9	9.6	11.9	2.0	9.0	3.5
50~54세	10.3	9.1	10.1	-0.2	7.7	3.1
55~59세	9.9	8.3	7.8	-2.1	8.0	1.5
60~64세	7.5	6.9	5.6	-1.9	11.9	-1.0
65~69세	6.6	5.1	5.0	-1.6	8.2	2.0
70~74세	4.4	4.1	3.7	-0.7	3.5	-1.6
75~79세	8.3	3.9	3.1	-5.2	10.3	-3.6
80~84세	3.5	4.9	2.6	-0.9	23.7	0.6
85세 이상	-	4.6	2.4	2.4	-	-6.1
계	100.0	100.0	100.0	-	10.3	1.5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서비스업 중 가계의 소비지출이 큰 상위 5개 산업은 음식점·숙박업, 교육, 통신, 대개인서비스, 주거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식점·숙박업에 대해서는 1990년 50대의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에 들어 40대의 소비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소비지출 비중도 크게 확대되어 음식점·숙박업에 대한 청·장년층의 소비구 매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의 증가로 외식이 잦아지고 여가로 여행을 즐기는 청·장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숙박업에서 이들 계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7] 음식점·숙박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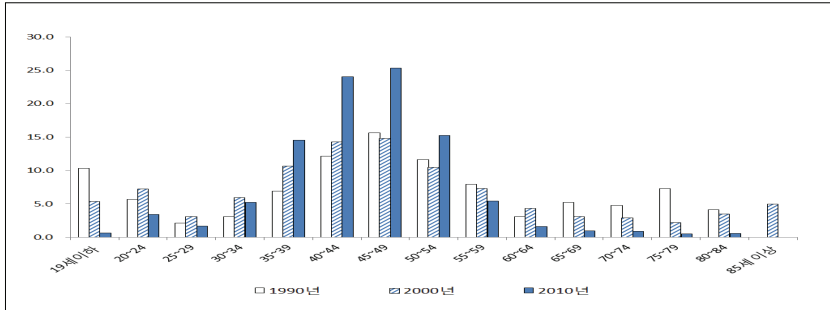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교육서비스업에서는 20대 이하 및 50대 후반 이상에서는 소비지출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1990년 이후 일관되게 40대의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세대의 소비지출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비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8]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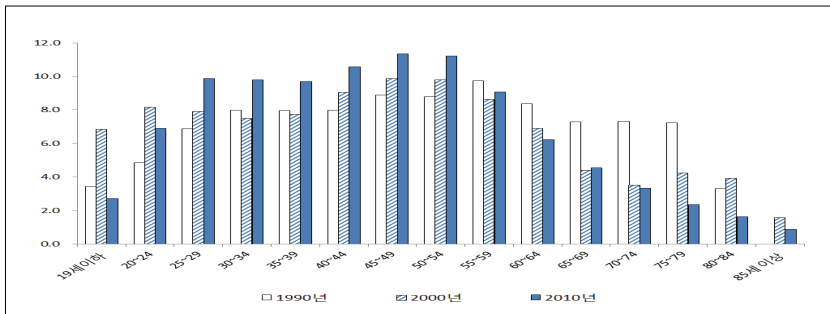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신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는 1990년 50대의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00년에 들어 40대의 소비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비중이 크게 축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 폰과 같은 이동통신기기의 소비 확대에 의해 청장년층이 통신서비스 소비를 주도하는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9] 통신서비스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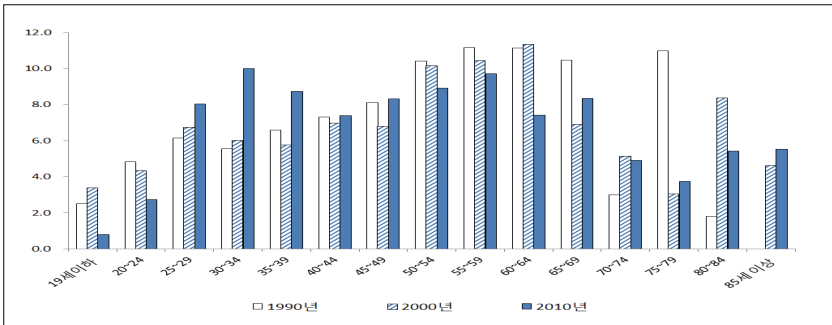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대개인서비스업의 경우 1990년대에는 50-70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2000년대에는 20-30대의 비중이 확대된 반면, 70대 후반 이후 초

고령층의 소비비중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개인 서비스업 중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높은 품목으로는 이미용서비스, 혼례 및 장제례비,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가사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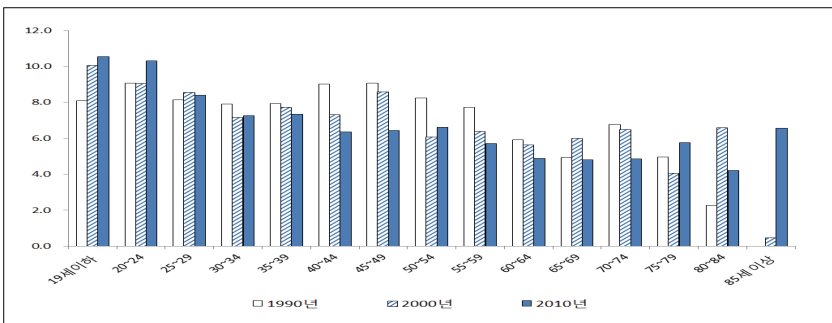
[그림 3-10] 대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거서비스업은 1990년 40대의 소비지출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20대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주거서비스업에 대한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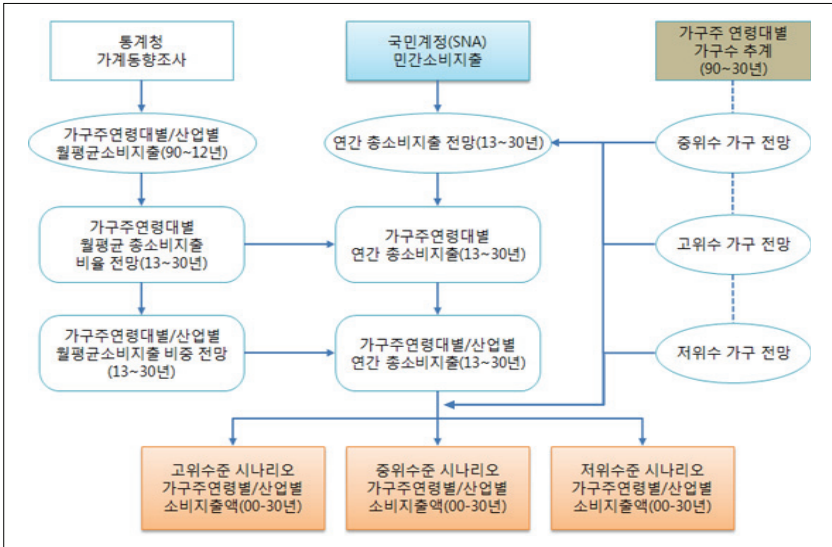
제2절 가계의 산업별 소비 전망방법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가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계소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며, 이것이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앞장에서는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가구주 연령별 가구 수를 전망하였고, 본 절에서는 연령별 가구 수 전망치에 적용할 연령별 연간 가계소비의 규모와 이를 이용하여 산업별 소비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 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가계소비와 관련된 통계로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을 조사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상 가계최종소비지출이 있다. 전자는 가구주의 연령별 및 세부소비항목별 가계의 월평균 소비액을 파악할 수 있으며, 후자는 국내총생산(GDP)과 연계된 가계소비의 연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진면 외(2012)에서는 후자와 통계적 정합성이 확보된 연간 민간소비액을 2030년까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통계적 정보와 적절한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면 연도별 가구주의 연령별·산업별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며, 이의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로 앞 절에서 파악한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 연령별·산업별 월평균 소비지출비중과 전체 연령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 총액 대비 각 연령별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 비율의 과거 추세를 근거로 2030년까지 연장한다.¹⁸⁾

18) 추세연장의 과정을 설명하면 우선 1990-2013년 기간 동안 각 비중과 비율을 시간변수에 대한 선형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등으로 회귀하여 가장 설명력이 높은 추세선을 선택한 다음, 이를 2030년까지 연장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며,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경우 추세선의 기간이동이나 함수의 변경 등을 반복하여 최종적인 추세선을 선택함.

[그림 3-12] 가계의 산업별 소비지출 전망절차



2단계는 가구주 연령별 연간 가구당 소비총액을 국민계정의 가계소비 기준으로 전환하여 전망하는 것이다. 즉, 1단계에서 추세 연장한 전연령대의 가계소비 월평균 총액 대비 각 연령대별 비율에 국민계정의 민간소비지출을 2030년까지 전망한 이진면 외(2012)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다.¹⁹⁾ 이때 국민계정의 민간소비지출은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2030년까지 전망한 가구 수로 나눈 가구당 민간소비를 적용한다.

3단계는 가구주 연령별·산업별 연간 가구당 소비액을 전망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2030년까지 추세 연장한 연령별·산업별 월평균 가구당 소비비중에 2단계에서 전망한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민간소비 총액을 곱하면 가구주 연령별·산업별 가구당 민간소비지출액을 산출할 수 있다.

4단계는 가구주 연령별·산업별 민간소비지출액을 전망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 가구당으로 산출된 가구주 연령별·산업별 민간소비지출액에 인

19) 민간소비에는 가계소비와 비영리단체의 소비를 포함한 것임.

구성장 시나리오별 가수 수의 전망치를 곱하면 시나리오별 가구주연령별·산업별 연간 소비지출액이 최종적으로 산출된다.

제3절 시나리오별 가계소비 전망

1. 가계 소비지출규모 전망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는 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순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구 및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 규모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는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10년 617조원에서 2020년 1,096조원, 2030년 1,773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소비지출 규모가 중위 시나리오 대비 2020년 103.6%, 2030년 108.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저위 시나리오는 2020년 96.6%, 2030년 9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에 대한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벌어져 소비구조에 인구학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위 시나리오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요인이 소비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 시나리오에서 인구 및 가구 수와 고령층 가구주의 비중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농림어업의 소비지출 규모는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10년 45조원에서 2020년 83조원, 2030년 142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소비지출 규모가 중위 시나리오 대비 2020년 103.1%, 2030년 107.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저위 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 95.9%, 2030년 9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림어업은 저위 시나리오에서 인구학적 요인이 소비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

향은 더 크게 나타나며, 대표적인 산업으로 작물을 들 수 있다.

반면 제조업의 소비지출 규모는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10년 203조원에서 2020년 378조원, 2030년 61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소비지출 규모가 중위 시나리오 대비 2020년 103.6%, 2030년 108.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저위 시나리오의 경우 2020년 96.7%, 2030년 9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위 시나리오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요인이 소비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제조업 세부업종에서 의약품, 식료품, 석유 및 석탄제품 등이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반면 고위와 저위 시나리오에서 중위 시나리오 대비 높은 소비지출 비율을 보이는 인쇄 및 복제, 기타화학제품의 경우 소비지출 규모 자체가 작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의 소비지출 규모 역시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10년 335조원에서 2020년 570조원, 2030년 901조원으로 중위 대비 고위는 2020년 103.7%, 2030년 108.0%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저위는 2020년 96.7%, 2030년 9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서비스업에서 인구학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은 주거 서비스, 의료 및 보건, 음식점 및 숙박업 등이며, 시나리오별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출판서비스, 영화 등은 소비지출의 절대 규모가 작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전력·가스·증기·수도 산업에 대한 소비지출 규모는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10년 34조원에서 2020년 65조원, 2030년에는 113조원으로 전망된다. 중위 시나리오 대비 고위는 2020년 103.7%, 2030년 108.2%,

64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위는 2020년 96.5%, 2030년 9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8〉 시나리오별 산업별 소비지출 전망(1)

구분	소비지출(천억원)								중위대비 비율 (중위=100)			
	실적	중위			고위		저위		고위		저위	
		201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농림어업	451	836	1424	862	1530	802	1295	103.1	107.4	95.9	90.9	
작물	243	463	798	478	858	444	724	103.2	107.6	95.9	90.8	
축산물	124	228	385	235	413	219	352	103.1	107.3	96.1	91.4	
임산물	8	14	24	14	25	13	22	103.1	107.5	96.0	91.1	
수산물	76	131	218	135	233	125	197	102.9	107.2	95.6	90.5	
제조업	2030	3775	6165	3912	6659	3651	5682	103.6	108.0	96.7	92.2	
식품	370	712	1226	739	1324	688	1126	103.7	108.0	96.6	91.8	
음료	74	137	223	142	241	133	205	103.9	108.3	96.9	92.3	
담배	53	83	121	85	130	80	111	103.0	107.3	96.2	91.5	
섬유	27	50	80	52	87	49	74	103.8	108.3	96.9	92.6	
의복	334	629	1005	652	1086	610	930	103.7	108.0	97.0	92.5	
가죽, 모피, 신발	75	159	270	166	294	155	252	104.4	108.9	97.7	93.4	
펄프 및 종이	14	28	49	29	53	27	45	103.9	108.3	96.9	92.2	
인쇄 및 복제	0	1	1	1	2	1	1	111.0	118.6	101.5	98.3	
석유 및 석탄제품	361	669	1080	690	1162	645	992	103.2	107.5	96.4	91.8	
의약품	137	235	397	245	432	227	363	104.2	109.0	96.4	91.6	
화장품	96	179	293	186	317	174	271	103.8	108.2	97.0	92.5	
기타화학제품	1	1	2	1	2	1	2	105.6	109.4	99.0	94.5	
도기 및 자기제품	6	12	22	13	23	12	20	103.2	107.5	96.5	92.3	
금속제품	12	24	42	25	45	23	38	103.3	107.4	96.4	91.6	
가전	88	145	224	150	240	140	204	103.1	107.5	96.1	91.4	
컴퓨터 및 사무기기	25	31	42	33	45	31	39	104.3	109.0	97.6	93.7	
전기기계 및 장치	3	7	12	7	13	7	11	103.9	108.7	96.6	92.0	
의료기기	19	32	51	33	56	31	47	104.1	109.0	96.7	91.9	
정밀기기	9	10	13	10	14	9	12	104.0	108.2	97.3	92.8	
자동차	180	367	593	380	639	356	549	103.5	107.7	96.9	92.7	
기타수송기계	4	6	9	6	10	5	8	103.2	107.8	96.2	91.8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140	256	409	266	442	248	378	103.8	108.1	96.9	92.4	

〈표 3-9〉 시나리오별 산업별 소비지출 전망(2)

구분	소비지출(천억원)								중위대비 비율 (중위=100)			
	실적	중위			고위		저위		고위		저위	
		201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전력·가스·증기·수도	340	649	1129	673	1220	627	1036	103.7	108.0	96.5	91.7	
전력	140	251	427	260	460	242	390	103.4	107.7	96.3	91.4	
가스, 증기, 수도	201	398	702	413	760	385	646	103.8	108.2	96.7	91.9	
서비스업	3348	5696	9011	5906	9750	5510	8301	103.7	108.2	96.7	92.1	
음식점및숙박업	767	1341	2054	1392	2220	1301	1900	103.7	108.1	97.0	92.5	
운수및보관	179	310	477	322	518	301	441	104.0	108.4	97.2	92.5	
금융및보험	173	332	551	343	592	321	508	103.2	107.5	96.6	92.2	
주거서비스	331	631	1066	658	1157	611	978	104.2	108.6	96.8	91.8	
부동산서비스	6	14	29	15	32	13	27	103.9	109.5	96.3	91.0	
기계장비및응용품임대	1	1	1	1	1	1	1	103.0	108.1	96.2	91.7	
출판서비스	58	74	103	77	114	72	97	104.7	109.8	97.6	93.4	
영화	11	21	32	22	35	20	30	104.7	109.2	98.0	93.8	
방송	28	47	79	49	85	45	72	104.1	108.5	96.6	91.6	
통신	377	649	984	673	1063	629	910	103.7	108.1	97.0	92.6	
정보서비스	9	30	63	31	69	29	59	104.4	108.8	97.6	93.1	
사업지원서비스	46	114	212	116	226	109	193	102.4	106.6	95.8	91.4	
교육	659	925	1326	954	1435	892	1220	103.1	108.2	96.4	92.0	
의료및보건	278	503	875	522	948	484	799	103.8	108.4	96.2	91.3	
사회복지사업	88	88	142	93	156	86	133	105.2	109.5	97.5	93.3	
문화서비스	24	54	109	56	117	52	100	104.0	108.0	96.9	92.0	
오락서비스	36	63	103	65	111	61	95	103.4	107.5	96.7	92.1	
위생서비스	4	7	10	7	11	7	9	104.0	108.8	96.6	91.9	
대개인서비스	272	493	795	511	861	475	729	103.7	108.2	96.4	91.6	
계	6170	10956	17729	11353	19158	10589	16313	103.6	108.1	96.6	92.0	

고위·저위 시나리오에서도 55-59세, 65-69세, 60-64세 순으로 소비 지출 비중 증가폭이 크게 전망됨에 따라 소비에서 고령층의 중요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1) 농림어업

농림어업은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10년에는 40대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2020년에는 50대, 2030년에는 6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림어업의 주요 소비층의 연령이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55세 이상 연령층은 농림어업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 연령층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층에 해당하는 장년층의 농림어업 소비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농림어업 소비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령별 특징은 고위·저위 시나리오 전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위 시나리오에서 2030년 65세 이상 고령층의 농림어업 소비지출 비중이 중위 시나리오에서 보다 크게 전망됨에 따라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1〉 농림어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중위		고위		저위		고위-중위	저위-중위
	201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30	2030
19세 이하	0.04	0.05	0.04	0.05	0.04	0.05	0.03	0.01	-0.01
20~24세	0.72	0.75	0.51	0.96	0.67	1.00	0.73	0.16	0.21
25~29세	2.65	2.91	2.26	3.11	2.44	3.16	2.60	0.19	0.34
30~34세	5.79	3.95	3.55	4.09	3.64	4.08	3.75	0.08	0.20
35~39세	10.03	7.05	5.88	7.16	6.00	7.14	6.03	0.11	0.15
40~44세	12.98	9.75	7.45	9.81	7.62	9.82	7.57	0.17	0.12
45~49세	14.74	12.18	10.16	12.09	10.21	12.18	10.21	0.05	0.05
50~54세	14.23	12.40	10.13	12.23	10.05	12.38	10.17	-0.08	0.04
55~59세	11.30	14.86	14.08	14.50	13.71	14.69	13.98	-0.38	-0.10
60~64세	9.33	12.65	12.35	12.28	11.91	12.43	12.18	-0.44	-0.17
65~69세	7.58	9.79	13.86	9.51	13.35	9.58	13.56	-0.51	-0.30
70~74세	5.84	6.29	10.23	6.19	9.99	6.14	9.96	-0.24	-0.27
75~79세	3.15	4.31	5.70	4.40	5.80	4.24	5.56	0.10	-0.14
80~84세	1.24	2.17	2.67	2.39	2.98	2.19	2.62	0.30	-0.05
85세 이상	0.37	0.91	1.11	1.22	1.60	0.94	1.05	0.49	-0.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2) 제조업

제조업은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20년까지 40대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30년에는 5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55세 이상 연령층은 제조업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55~69세의 소비지출 비중 확대는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55세 미만 연령층은 제조업에 대한 소비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어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역시 고위 시나리오에서 2030년 75세 이상 고령층의 소비지출 비중이 중위 시나리오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되

어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고위 시나리오에서 인구 및 가구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령가구주의 증가에 따라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고령층 가구주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2〉 제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중위		고위		저위		고위-중위	저위-중위
	201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30	2030
19세 이하	0.09	0.13	0.11	0.14	0.13	0.12	0.09	0.02	-0.03
20~24세	1.84	1.20	0.90	1.52	1.16	1.58	1.25	0.27	0.36
25~29세	5.43	6.01	4.80	6.39	5.16	6.47	5.44	0.37	0.64
30~34세	10.65	8.00	8.00	8.25	8.14	8.20	8.33	0.14	0.33
35~39세	14.30	10.50	9.54	10.62	9.67	10.54	9.65	0.13	0.11
40~44세	14.75	12.70	10.69	12.70	10.87	12.68	10.72	0.18	0.03
45~49세	15.55	14.03	12.75	13.86	12.74	13.92	12.65	-0.01	-0.10
50~54세	13.86	12.79	11.20	12.56	11.05	12.66	11.09	-0.15	-0.11
55~59세	8.94	13.42	13.84	13.03	13.40	13.15	13.55	-0.44	-0.28
60~64세	5.77	9.46	10.15	9.14	9.74	9.22	9.87	-0.41	-0.27
65~69세	3.95	5.30	8.03	5.12	7.70	5.14	7.76	-0.34	-0.28
70~74세	2.67	3.18	5.51	3.12	5.35	3.08	5.29	-0.16	-0.22
75~79세	1.40	1.88	2.64	1.91	2.67	1.84	2.54	0.03	-0.10
80~84세	0.58	1.01	1.34	1.11	1.48	1.01	1.30	0.14	-0.04
85세 이상	0.21	0.39	0.51	0.53	0.74	0.40	0.48	0.22	-0.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제조업 중 소비지출액이 큰 5개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산업은 가구원수가 많은 40대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동시에 소비지출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장년층의 식료품 소비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55세 이상 연령층의 식료품 소비지출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65-69세의 비중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표 3-13〉 식료품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중위		고위		저위		고위-중위	저위-중위
	201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30	2030
19세 이하	0.12	0.15	0.11	0.16	0.13	0.14	0.09	0.02	-0.03
20~24세	1.37	1.28	0.90	1.63	1.16	1.69	1.26	0.27	0.36
25~29세	4.51	4.56	3.61	4.85	3.88	4.92	4.10	0.27	0.50
30~34세	9.53	6.86	6.56	7.07	6.68	7.04	6.86	0.12	0.30
35~39세	14.18	10.98	9.76	11.09	9.89	11.04	9.91	0.13	0.15
40~44세	16.23	13.17	10.70	13.17	10.88	13.17	10.77	0.18	0.07
45~49세	15.63	14.07	12.47	13.90	12.46	13.98	12.42	-0.01	-0.05
50~54세	12.34	11.67	10.15	11.44	10.01	11.56	10.09	-0.14	-0.06
55~59세	8.15	11.80	11.83	11.44	11.46	11.58	11.63	-0.38	-0.20
60~64세	6.37	9.31	9.71	8.99	9.32	9.08	9.49	-0.39	-0.23
65~69세	4.74	6.85	10.32	6.63	9.89	6.66	10.01	-0.44	-0.32
70~74세	3.62	4.26	7.24	4.17	7.03	4.13	6.98	-0.21	-0.26
75~79세	2.08	2.91	3.96	2.96	4.01	2.84	3.82	0.05	-0.14
80~84세	0.90	1.53	1.96	1.68	2.16	1.54	1.90	0.21	-0.06
85세 이상	0.24	0.61	0.73	0.82	1.04	0.63	0.68	0.32	-0.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의복 산업에서 40-50대가 주요 소비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5-59세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60-64세, 65-69세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의복 소비에서 고령층의 소비지출 규모 자체는 작지만, 산업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주요 소비자인 40-50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 의복 소비에서 고령층의 소비 비중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4〉 의복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중위		고위		저위		고위-중위	저위-중위
	201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30	2030
19세 이하	2.03	2.52	3.53	2.46	3.42	2.43	3.37	-0.11	-0.16
20~24세	2.22	1.75	1.29	2.24	1.68	2.31	1.81	0.39	0.51
25~29세	5.80	5.82	4.74	6.19	5.11	6.26	5.36	0.37	0.62
30~34세	10.51	7.69	7.73	7.93	7.88	7.86	8.03	0.15	0.30
35~39세	13.20	10.45	9.75	10.57	9.90	10.48	9.84	0.15	0.09
40~44세	14.90	13.30	11.37	13.31	11.58	13.26	11.38	0.21	0.00
45~49세	16.45	15.30	14.26	15.12	14.27	15.15	14.11	0.01	-0.15
50~54세	14.17	13.33	11.82	13.09	11.68	13.17	11.67	-0.14	-0.15
55~59세	8.87	13.22	13.86	12.84	13.44	12.94	13.54	-0.42	-0.32
60~64세	5.49	8.35	9.00	8.07	8.64	8.12	8.73	-0.35	-0.26
65~69세	3.40	4.39	6.68	4.24	6.40	4.25	6.43	-0.27	-0.25
70~74세	1.79	2.14	3.62	2.10	3.52	2.07	3.46	-0.10	-0.15
75~79세	0.83	1.09	1.51	1.11	1.53	1.07	1.44	0.02	-0.06
80~84세	0.25	0.57	0.77	0.62	0.85	0.56	0.74	0.08	-0.03
85세 이상	0.08	0.09	0.08	0.11	0.12	0.09	0.08	0.04	-0.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은 2010년에 40대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20년부터 50대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60~64세, 55~59세 순으로 소비지출의 비중 증가폭이 크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전체 가구 규모 증가에 따라 이들의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2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표 3-15〉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중위		고위		저위		고위-중위		저위-중위	
	201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30	2030	2030	
19세 이하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20~24세	0.67	0.61	0.44	0.78	0.58	0.81	0.62	0.13	0.18		
25~29세	4.42	4.10	3.10	4.38	3.35	4.43	3.52	0.25	0.43		
30~34세	10.59	8.06	8.04	8.35	8.22	8.29	8.40	0.18	0.36		
35~39세	13.96	10.84	9.74	11.01	9.92	10.93	9.90	0.18	0.15		
40~44세	15.33	12.88	10.63	12.94	10.87	12.90	10.71	0.23	0.07		
45~49세	16.16	14.48	12.91	14.37	12.96	14.41	12.85	0.05	-0.06		
50~54세	15.29	14.11	12.52	13.91	12.41	14.01	12.45	-0.11	-0.08		
55~59세	10.00	14.65	15.19	14.28	14.77	14.41	14.93	-0.42	-0.26		
60~64세	6.00	10.19	11.38	9.89	10.97	9.97	11.12	-0.41	-0.27		
65~69세	3.89	4.86	7.39	4.72	7.11	4.73	7.16	-0.28	-0.23		
70~74세	2.25	2.79	5.01	2.74	4.89	2.71	4.83	-0.12	-0.18		
75~79세	0.95	1.51	2.35	1.54	2.39	1.48	2.27	0.04	-0.08		
80~84세	0.33	0.65	0.89	0.72	0.99	0.66	0.86	0.10	-0.03		
85세 이상	0.16	0.27	0.40	0.36	0.57	0.28	0.37	0.17	-0.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자동차 산업은 2010년 30대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지만 2020년부터 40대의 소비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평균 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고령층의 자동차 구입 증가가 예상되어 자동차 소비층의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산업은 2010년에는 40대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20년에는 50대, 2030년에는 60대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지출의 비중 증가폭은 65-69세, 70-74세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4)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소비지출 비중에서 55세 이상 연령층의 중위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차이가 모두 ‘+’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에서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9〉 서비스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중위		고위		저위		고위-중위	저위-중위
	201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30	2030
19세 이하	0.16	0.14	0.11	0.05	0.04	0.05	0.03	-0.07	-0.08
20~24세	1.53	1.50	1.08	0.96	0.67	1.00	0.73	-0.41	-0.35
25~29세	4.72	4.61	3.68	3.11	2.44	3.16	2.60	-1.24	-1.08
30~34세	9.09	6.98	7.09	4.09	3.64	4.08	3.75	-3.45	-3.34
35~39세	13.63	10.52	9.62	7.16	6.00	7.14	6.03	-3.62	-3.59
40~44세	16.75	13.42	11.09	9.81	7.62	9.82	7.57	-3.47	-3.52
45~49세	18.23	17.06	15.78	12.09	10.21	12.18	10.21	-5.57	-5.57
50~54세	14.65	14.55	13.26	12.23	10.05	12.38	10.17	-3.21	-3.09
55~59세	8.36	12.44	12.98	14.50	13.71	14.69	13.98	0.73	1.00
60~64세	4.84	8.00	8.71	12.28	11.91	12.43	12.18	3.20	3.47
65~69세	3.63	4.68	7.20	9.51	13.35	9.58	13.56	6.15	6.36
70~74세	2.34	2.62	4.52	6.19	9.99	6.14	9.96	5.47	5.44
75~79세	1.30	1.91	2.76	4.40	5.80	4.24	5.56	3.04	2.80
80~84세	0.55	1.07	1.43	2.39	2.98	2.19	2.62	1.55	1.19
85세 이상	0.21	0.49	0.70	1.22	1.60	0.94	1.05	0.90	0.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음식점 및 숙박업은 2010년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부터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장년층의 음식점 및 숙박업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55세 이상 연령층의 음식점 및 숙박업에 대한 소비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76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외식도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3-20〉 음식점 및 숙박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중위		고위		저위		고위-중위	저위-중위
	201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30	2030
19세 이하	0.13	0.14	0.12	0.15	0.14	0.13	0.09	0.02	-0.03
20~24세	1.70	2.18	1.65	2.78	2.14	2.87	2.30	0.49	0.65
25~29세	5.43	5.56	4.52	5.91	4.86	5.97	5.10	0.34	0.58
30~34세	9.68	7.17	7.32	7.39	7.45	7.32	7.59	0.12	0.27
35~39세	13.31	10.24	9.50	10.35	9.62	10.25	9.57	0.12	0.08
40~44세	16.19	12.51	10.42	12.50	10.59	12.45	10.41	0.17	-0.01
45~49세	17.36	16.12	15.10	15.91	15.08	15.94	14.92	-0.02	-0.18
50~54세	15.19	15.16	14.09	14.87	13.89	14.95	13.90	-0.20	-0.19
55~59세	9.38	14.01	14.74	13.59	14.26	13.69	14.38	-0.48	-0.36
60~64세	5.28	8.75	9.80	8.44	9.39	8.50	9.50	-0.40	-0.30
65~69세	3.24	4.21	6.54	4.07	6.26	4.07	6.29	-0.28	-0.25
70~74세	1.90	1.90	3.26	1.86	3.16	1.83	3.12	-0.10	-0.14
75~79세	0.85	1.30	1.96	1.32	1.98	1.27	1.88	0.02	-0.08
80~84세	0.26	0.53	0.72	0.58	0.80	0.53	0.69	0.08	-0.03
85세 이상	0.09	0.21	0.26	0.28	0.38	0.21	0.24	0.11	-0.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교육서비스업은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50대 비중 역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도 다른 산업에 비해 비중 변화가 미미한 수준으로 전망되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21〉 교육서비스업의 가구주 연령별 소비구조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중위		고위		저위		고위-중위	저위-중위
	201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30	2030
19세 이하	0.02	0.09	0.06	0.10	0.07	0.08	0.04	0.01	-0.01
20~24세	0.70	0.53	0.34	0.68	0.44	0.70	0.48	0.10	0.14
25~29세	0.79	0.91	0.68	0.97	0.74	0.98	0.78	0.05	0.09
30~34세	3.95	2.93	2.96	3.04	3.01	3.01	3.09	0.05	0.13
35~39세	14.46	12.22	11.96	12.42	12.10	12.31	12.12	0.14	0.16
40~44세	26.91	23.36	21.01	23.49	21.34	23.40	21.11	0.33	0.10
45~49세	29.64	33.26	34.50	33.03	34.42	33.10	34.28	-0.08	-0.22
50~54세	16.80	17.84	18.29	17.60	18.02	17.71	18.14	-0.27	-0.15
55~59세	4.46	6.02	6.70	5.88	6.48	5.92	6.58	-0.22	-0.13
60~64세	1.05	1.52	1.66	1.48	1.59	1.49	1.61	-0.07	-0.04
65~69세	0.53	0.58	0.75	0.57	0.71	0.57	0.72	-0.03	-0.02
70~74세	0.42	0.36	0.55	0.36	0.54	0.35	0.53	-0.02	-0.02
75~79세	0.17	0.31	0.47	0.32	0.48	0.30	0.45	0.01	-0.02
80~84세	0.09	0.06	0.07	0.07	0.08	0.06	0.07	0.01	0.00
85세 이상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통신서비스업은 55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청년층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서비스업은 혼자 사는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지출 비중의 증가폭도 65-69세, 70-74세 순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 가계소비의 산업별 파급 영향

제1절 분석방법론

제2절 산업별 총산출 파급 영향

제3절 산업별 부가가치 파급 영향

제4절 산업별 고용 파급 영향



4

제4장 가계소비의 산업별 << 파급 영향

제1절 분석방법론

제3장에서 전망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소비구조변화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한다. 산업연관모형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를 과부족 없이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산업의 산출량을 분석하는 일종의 일반균형모형이다.²⁰⁾ 산업연관모형은 이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응용모형으로 확장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국산재와 수입재를 이질적인 것으로 구분한 소위 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도출된 다음과 유발계수를 이용한다.

생산유발계수행렬 : $(I - A^d)^{-1}$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 : $\widehat{A}^v(I - A^d)^{-1}$

고용유발계수행렬 : $\widehat{l}_y(I - A^d)^{-1}$

I : 항등행렬(identity matrix)

A^d : 국산투입계수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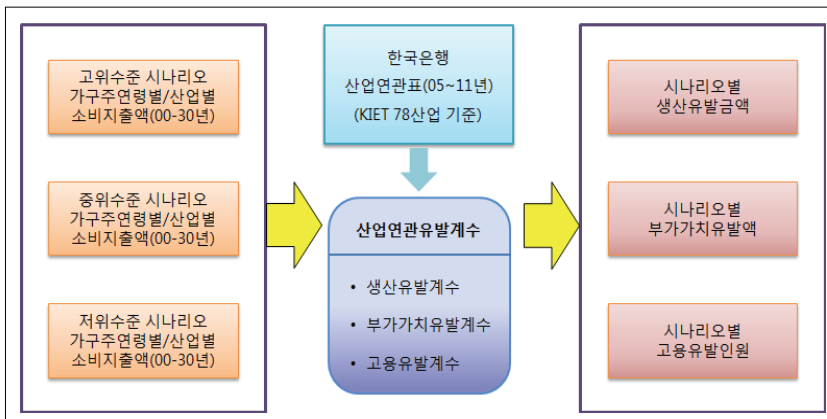
\widehat{A}^v :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

\widehat{l}_y : 고용계수의 대각행렬

20) 산업연관모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Miller and Blair(1985), 한국은행(2007) 등을 참조하기 바람.

상기의 유발계수행렬에 앞에서 전망한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가계의 산업별 소비를 곱하면 산업별 총산출, 부가가치 및 고용이 산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발계수행렬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국산중간투입계수, 부가가치계수 및 고용 계수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05-2011년 6개년에 대한 경상 산업연관표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산업분류는 소비분석에 사용한 산업연구원(KIET)의 78개 산업을 기준하였다. 다만, 고용계수는 2005년 불변 총산출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²¹⁾

[그림 4-1] 파급효과 전망 절차



제2절 산업별 총산출 파급 영향

각 산업의 생산활동은 대부분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파급효과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관련되는 모든 산업부문 제품의 생산에까지 미치게 되며 그 총산출의 규모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식료품 부문의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식

21) 이진면 외(2012)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데이터를 이용함.

료품 부문을 제외한 타 산업에서 유발되는 생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크다는 것은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강하고 반대로 작다는 것은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처럼 최종수요에 의해 생산이 유발되고, 유발된 생산이 각 산업의 연관관계에 의해 파급되는 과정에서 총산출이 계측되며 이는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 구해진다.

가계의 소비지출 총액이 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가운데 생산유발액은 2020년 2,022조원에서 2030년 3,271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시나리오별 생산유발액은 고위에서 2020년 2,095조원에서 2030년 3,543조원으로, 저위에서 2020년 1,954조원에서 2030년 3,01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위 시나리오 대비 고위의 생산유발 규모는 2020년 3.6%에서 2030년 8.1% 가량 높을 것으로, 반면 저위의 생산유발 규모는 동기간 3.3%, 8.0%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4대 산업 중에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20년 935조원에서 2030년 1,49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생산유발액은 중위 기준으로 2020년 810조원에서 2030년 1,31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변함없이 한국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중고위, 중저위 간 시나리오별 생산유발 효과 비교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면, 전산업 대비 농림어업은 고위와 저위 모든 시나리오에서 낮은 생산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위의 감소폭이 저위보다 작을 것으로 계측되어 전체 가구의 규모 보다는 고령 가구주의 비중 증가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SOC는 고위의 경우 전산업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위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

체 가구 규모의 축소는 SOC 부문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전산업 대비 고위와 저위 모든 시나리오에서 크게 계측되었으며, 고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 고령가구주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제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전산업 평균에 비해 고위에서 다소 작은 것으로, 저위에서 다소 큰 것으로 계측되어, 고령가구주의 비중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표 4-1〉 4대 산업 생산유발효과 전망

(단위: 조원, %)

전체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 (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전산업	2,022	3,271	2,095	3,534	1,954	3,011	103.6	108.1	96.7	92.0
농림어광업	160	269	166	290	154	246	103.4	107.7	96.2	91.4
제조업	810	1,316	840	1,421	784	1,212	103.6	108.0	96.7	92.1
SOC	116	196	120	212	112	180	103.7	108.1	96.6	91.8
서비스업	935	1,490	969	1,612	904	1,373	103.7	108.2	96.7	92.1

제조업 세부업종에서 식료품, 석유 및 석탄제품, 의복 등이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중위 기준으로 식료품의 생산유발액은 2020년 153조원에서 2030년 254조원으로 전망되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다음으로 생산유발액이 높은 산업은 석유 및 석탄제품으로 2020년 112조원에서 2030년 180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의복은 2020년 76조원에서 2030년 12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4-2〉 제조업 생산유발효과 전망

(단위: 백억원, %)

제조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식료품	15,308	25,475	15,865	27,510	14,791	23,419	103.6	108.0	96.6	91.9
음료품	2,632	4,194	2,732	4,538	2,550	3,871	103.8	108.2	96.9	92.3
담배	849	1,244	875	1,335	817	1,139	103.0	107.3	96.2	91.5
섬유	2,115	3,394	2,194	3,670	2,050	3,141	103.7	108.1	96.9	92.5
의복	7,560	12,098	7,838	13,070	7,328	11,188	103.7	108.0	96.9	92.5
가죽, 모피, 신발	1,913	3,233	1,996	3,517	1,867	3,017	104.3	108.8	97.6	93.3
목재 및 나무제품	434	703	450	759	420	647	103.6	107.9	96.6	92.0
펠프 및 종이	2,140	3,483	2,222	3,772	2,071	3,211	103.8	108.3	96.8	92.2
인쇄 및 복제	702	1,110	729	1,203	680	1,024	103.8	108.4	96.8	92.3
석유 및 석탄제품	11,163	18,021	11,538	19,413	10,771	16,560	103.4	107.7	96.5	91.9
기초화학제품	2,237	3,646	2,319	3,941	2,163	3,358	103.7	108.1	96.7	92.1
합성수지 및 고무	1,142	1,845	1,184	1,994	1,106	1,702	103.7	108.1	96.8	92.3
화학섬유	307	493	319	533	298	456	103.7	108.1	96.9	92.5
비료 및 농약	837	1,412	865	1,522	805	1,289	103.4	107.8	96.2	91.3
의약품	3,480	5,902	3,621	6,419	3,354	5,401	104.1	108.8	96.4	91.5
화장품	2,118	3,459	2,198	3,741	2,053	3,198	103.8	108.1	96.9	92.4
기타화학제품	858	1,383	890	1,495	831	1,276	103.7	108.1	96.8	92.3
고무, 플라스틱제품	2,754	4,467	2,855	4,825	2,664	4,117	103.6	108.0	96.7	92.2
유리 및 유리제품	443	718	459	776	428	661	103.7	108.2	96.7	92.1
도기 및 자기제품	173	298	179	321	167	275	103.4	107.7	96.6	92.2
기타비금속광물	146	240	152	260	142	221	103.8	108.2	96.7	92.0
철강	2,545	4,123	2,637	4,451	2,462	3,802	103.6	108.0	96.7	92.2
비철금속제품	631	1,021	654	1,104	610	941	103.7	108.1	96.7	92.1
금속제품	1,984	3,233	2,056	3,491	1,919	2,978	103.6	108.0	96.7	92.1
일반산업용기계	619	1,002	641	1,082	598	923	103.6	108.0	96.7	92.1
특수산업용기계	393	639	407	690	380	589	103.6	108.0	96.7	92.1
가전	1,911	2,949	1,971	3,172	1,837	2,696	103.2	107.6	96.2	91.4
방송, 통신기기	285	448	295	484	276	413	103.7	108.1	96.8	92.2
컴퓨터 및 사무기기	461	654	480	711	449	609	104.1	108.7	97.4	93.2
전기기계 및 장치	1,093	1,768	1,133	1,910	1,057	1,629	103.6	108.0	96.7	92.1

제조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디스플레이	212	328	219	353	205	301	103.4	107.8	96.4	91.8
반도체	88	138	91	149	85	127	103.6	108.1	96.6	92.0
기타전자부품	214	335	221	362	206	308	103.5	108.0	96.6	92.0
의료기기	418	682	435	742	404	626	104.0	108.9	96.6	91.8
정밀기기	295	452	306	489	286	417	103.7	108.0	96.8	92.2
자동차	6,836	11,033	7,080	11,896	6,623	10,210	103.6	107.8	96.9	92.5
조선	100	161	103	174	96	148	103.5	107.9	96.5	91.7
철도	21	33	22	36	20	31	103.8	108.2	96.9	92.3
항공기	36	57	37	62	35	53	103.8	108.2	96.9	92.2
기타수송기계	76	121	79	131	74	111	103.3	107.9	96.3	91.8

시나리오별 중위대비 비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고위에서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저위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별 차이는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음료품, 섬유, 의복, 가죽, 모피, 신발, 펄프 및 종이, 인쇄 및 복제, 기초화학제품, 합성수지 및 고무, 화학섬유, 화장품, 기타화학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기타비금속광물, 비철금속제품, 방송,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철도, 항공기 등은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에서 모두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담배, 석유 및 석탄 제품, 비료 및 농약,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 기타수송기계 등은 낮은 수준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 생산유발액이 큰 산업은 음식점 및 숙박업, 금융 및 보험, 교육, 대개인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중위 기준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의 생산유발액이 2020년 164조원, 2030년 253조원으로 전망되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으로 2020년 89조원, 2030년 146조원으로 전망된다. 교육은 2020년 93조원, 2030년 134조원으로 예상되며, 대개인서비스는 2020년 85조원, 2030년 136조원으로 전망된다. 중위대비 비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구의 규모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주거서비스에서 고위와 저위 시나리오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료 및 보건, 대개인서비스 등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업종에서 시나리오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운수 및 보관, 부동산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출판서비스, 영화, 통신, 정보서비스, 광고,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등은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에서 모두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지원 서비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3〉 서비스업 생산유발효과 전망

(단위: 백억원, %)

서비스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도소매업	6,443	10,339	6,680	11,174	6,233	9,528	103.7	108.1	96.7	92.1
음식점, 숙박업	16,360	25,279	16,969	27,329	15,856	23,354	103.7	108.1	96.9	92.4
운수 및 보관	6,390	10,109	6,636	10,942	6,193	9,328	103.9	108.2	96.9	92.3
금융 및 보험	8,868	14,599	9,179	15,751	8,570	13,445	103.5	107.9	96.6	92.1
주거서비스	6,311	10,656	6,578	11,568	6,107	9,780	104.2	108.6	96.8	91.8
부동산서비스	2,811	4,591	2,914	4,966	2,718	4,225	103.7	108.2	96.7	92.0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106	167	110	181	103	154	103.8	108.2	96.8	92.1
출판서비스	1,191	1,758	1,242	1,919	1,158	1,633	104.3	109.2	97.3	92.9
영화	708	1,122	738	1,220	688	1,040	104.2	108.7	97.2	92.7
방송	1,083	1,778	1,125	1,926	1,047	1,633	103.9	108.3	96.6	91.8
통신	9,073	13,924	9,407	15,047	8,794	12,875	103.7	108.1	96.9	92.5
정보서비스	980	1,720	1,018	1,864	951	1,593	103.9	108.4	97.0	92.6

9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비스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광고	868	1,397	900	1,512	840	1,288	103.7	108.2	96.8	92.2
연구기관	1,185	1,917	1,229	2,074	1,146	1,764	103.7	108.2	96.7	92.0
사업관련전문서비스	1,740	2,813	1,804	3,042	1,683	2,592	103.7	108.1	96.7	92.1
사업지원서비스	2,980	5,081	3,075	5,460	2,873	4,667	103.2	107.5	96.4	91.9
공공행정 및 국방	84	133	87	144	81	123	103.8	108.2	96.7	92.0
교육	9,330	13,391	9,619	14,487	8,993	12,321	103.1	108.2	96.4	92.0
의료 및 보건	5,392	9,340	5,595	10,122	5,190	8,531	103.8	108.4	96.3	91.3
사회복지사업	884	1,424	930	1,560	863	1,328	105.2	109.5	97.5	93.3
문화서비스	587	1,166	610	1,260	568	1,073	104.0	108.0	96.8	92.0
오락서비스	907	1,482	939	1,596	877	1,363	103.5	107.7	96.7	92.0
위생서비스	582	924	603	1,000	562	850	103.7	108.2	96.7	92.0
대개인서비스	8,479	13,645	8,789	14,759	8,183	12,526	103.7	108.2	96.5	91.8
사회단체	165	262	171	284	159	241	103.6	108.1	96.6	92.0

제3절 산업별 부가가치 파급 영향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창출의 원천이 된다.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단위를 보여주는 계수가 부가가치유발계수이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의 생산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그 산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최종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 구해진다.

〈표 4-4〉 4대 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망

(단위: 조원, %)

전체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		비율(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전산업	801	1,292	830	1,397	774	1,189	103.6	108.1	96.6	92.0
농림어광업	85	143	88	154	82	131	103.4	107.7	96.2	91.3
제조업	200	323	207	349	193	298	103.7	108.0	96.7	92.2
SOC	35	59	36	64	34	54	103.7	108.0	96.6	91.8
서비스업	481	767	499	830	465	706	103.7	108.2	96.7	92.1

민간부문의 소비지출에 따라 유발되는 부가가치 규모는 2020년 801조원에서 2030년 1,292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고위 시나리오에서 2020년 830조원, 2030년 1,397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저위 시나리오에서 동기간 774조원, 1,189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규모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 481조원에서 2030년 767조원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제조업은 2020년 200조원에서 2030년 323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동기간 농림어광업은 85조원에서 143조원으로, SOC는 35조원에서 5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고위와 저위의 부가가치 효과를 비교해보면, 전산업 대비 농림어광업은 고위와 저위에서 모두 감소할 것이며, 저위에서 비교적 큰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고위, 저위 시나리오에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증가 폭도 유사하게 나타나 고령가구주의 비중 변화와 전체 가구규모의 변화에 따른 충격이 시나리오별로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고위보다 저위에서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고령가구주의 비

중 감소에 다소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세부 업종부문에서 유발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식음료, 의복 등의 소비재 업종과 주택 광열비용과 연관성이 높은 석탄 및 석유제품 업종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식료품 업종의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2020년 25조원에서 2030년 41조원으로, 동기간 음료품 업종은 13조원에서 20조원으로 의복은 25조원에서 4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 및 석탄제품의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2020년 24조원에서 2030년 38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의약품의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2020년 13조원에서 2030년 21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 전체 세부 업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20년 대비 2030년에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제조업 부문의 중요성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표 4-5〉 제조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망

(단위: 백억원, %)

제조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식료품	2,465	4,101	2,554	4,429	2,381	3,771	103.6	108.0	96.6	91.9
음료품	1,271	2,025	1,319	2,191	1,231	1,869	103.8	108.2	96.9	92.3
담배	668	979	688	1,050	643	896	103.0	107.3	96.2	91.5
섬유	534	858	554	927	518	794	103.7	108.1	96.9	92.5
의복	2,544	4,072	2,638	4,399	2,466	3,765	103.7	108.0	96.9	92.5
가족, 모피, 신발	475	802	495	873	463	749	104.3	108.8	97.6	93.3
목재 및 나무제품	107	174	111	187	104	160	103.6	107.9	96.6	92.0
펄프 및 종이	569	927	591	1,003	551	854	103.8	108.3	96.8	92.2
인쇄 및 복제	281	444	292	481	272	410	103.8	108.4	96.8	92.3
석유 및 석탄제품	2,372	3,830	2,452	4,126	2,289	3,519	103.4	107.7	96.5	91.9
기초화학제품	257	418	266	452	248	385	103.7	108.1	96.7	92.1
합성수지 및 고무	176	284	182	307	170	262	103.7	108.1	96.8	92.3
화학섬유	49	78	50	84	47	72	103.7	108.1	96.9	92.5

제조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비료 및농약	142	239	146	257	136	218	103.4	107.8	96.2	91.3
의약품	1,263	2,142	1,314	2,329	1,217	1,960	104.1	108.8	96.4	91.5
화장품	651	1,064	676	1,150	631	983	103.8	108.1	96.9	92.4
기타화학제품	199	320	206	347	192	296	103.7	108.1	96.8	92.3
고무,플라스틱제품	758	1,229	786	1,328	733	1,133	103.6	108.0	96.7	92.2
유리 및 유리제품	179	290	186	314	173	268	103.7	108.2	96.7	92.1
도기 및 자기제품	63	108	65	116	60	99	103.4	107.7	96.6	92.2
기타비금속광물	34	55	35	60	32	51	103.8	108.2	96.7	92.0
철강	424	687	439	741	410	633	103.6	108.0	96.7	92.2
비철금속제품	89	144	92	155	86	133	103.7	108.1	96.7	92.1
금속제품	566	922	586	996	547	849	103.6	108.0	96.7	92.1
일반산업용기계	163	264	169	285	158	243	103.6	108.0	96.7	92.1
특수산업용기계	101	164	105	177	98	151	103.6	108.0	96.7	92.1
가전	325	501	335	539	312	458	103.2	107.6	96.2	91.4
방송, 통신기기	48	76	50	82	47	70	103.7	108.1	96.8	92.2
컴퓨터 및 사무기기	83	118	87	129	81	110	104.1	108.7	97.4	93.2
전기기계 및 장치	289	467	299	505	279	430	103.6	108.0	96.7	92.1
디스플레이	42	64	43	69	40	59	103.4	107.8	96.4	91.8
반도체	27	42	28	46	26	39	103.6	108.1	96.6	92.0
기타전자부품	59	92	61	100	57	85	103.5	108.0	96.6	92.0
의료기기	122	198	127	216	118	182	104.0	108.9	96.6	91.8
정밀기기	76	117	79	126	74	108	103.7	108.0	96.8	92.2
자동차	1,456	2,349	1,508	2,533	1,410	2,174	103.6	107.8	96.9	92.5
조선	29	47	30	50	28	43	103.5	107.9	96.5	91.7
철도	5	8	5	9	5	7	103.8	108.2	96.9	92.3
항공기	8	13	8	14	8	12	103.8	108.2	96.9	92.2
기타수송기계	15	24	16	26	15	22	103.3	107.9	96.3	91.8

시나리오별 중위대비 비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정밀기기 등이 시나리오별 차이가 큰 산업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고령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고위 시나리오에서 자동차와 정밀

기기는 비교적 고령가구주의 비중이 낮은 저위 시나리오에서 전 산업대 비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음료품, 섬유, 가죽, 모피, 신발, 펄프 및 종이, 인쇄 및 복제, 기초화학제품, 합성수지 및 고무, 화학섬유, 화장품, 기타화학제품, 유리 및 유리제품, 기타비금속광물, 비철금속제품, 방송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반도체, 철도, 항공기 등은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에서 모두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담배, 석유 및 석탄 제품, 비료 및 농약,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 기타수송기계 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의 세부업종에서도 제조업과 유사하게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업종의 부가가치 유발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도소매업은 2020년 38조원에서 2030년 60조원으로 증가하며, 동기간 음식점 및 숙박업은 64조원에서 9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 및 보험, 주거 서비스의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각각 2020년 51조원, 49조원에서 2030년 84조원, 83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부문에서 민간소비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세부업종은 교육으로 2020년 73조원에서 2030년 10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부업종별 특징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운수 및 보관, 부동산 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출판서비스, 영화, 통신, 정보서비스, 광고,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사회단체 등에서 고위와 저위 시나리오 모두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지원서비스의 경우 낮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유발효과와 전망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서비스업 부가가치유발효과 전망

(단위: 백억원, %)

서비스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도소매업	3,751	6,018	3,888	6,504	3,628	5,546	103.7	108.1	96.7	92.1
음식점, 숙박업	6,389	9,873	6,627	10,673	6,192	9,121	103.7	108.1	96.9	92.4
운수 및 보관	2,390	3,782	2,483	4,093	2,317	3,490	103.9	108.2	96.9	92.3
금융 및 보험	5,130	8,446	5,310	9,112	4,958	7,778	103.5	107.9	96.6	92.1
주거서비스	4,894	8,263	5,101	8,971	4,736	7,584	104.2	108.6	96.8	91.8
부동산서비스	2,047	3,343	2,122	3,616	1,979	3,076	103.7	108.2	96.7	92.0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63	99	65	107	61	91	103.8	108.2	96.8	92.1
출판서비스	380	561	396	612	370	521	104.3	109.2	97.3	92.9
영화	298	472	310	513	290	438	104.2	108.7	97.2	92.7
방송	455	747	472	809	439	686	103.9	108.3	96.6	91.8
통신	4,132	6,341	4,283	6,852	4,004	5,863	103.7	108.1	96.9	92.5
정보서비스	483	848	502	919	469	785	103.9	108.4	97.0	92.6
광고	92	148	95	160	89	136	103.7	108.2	96.8	92.2
연구기관	795	1,286	825	1,391	769	1,184	103.7	108.2	96.7	92.0
사업관련전문 서비스	1,220	1,973	1,265	2,133	1,180	1,817	103.7	108.1	96.7	92.1
사업지원서비스	2,080	3,546	2,146	3,810	2,005	3,257	103.2	107.5	96.4	91.9
공공행정 및 국방	57	90	59	98	55	83	103.8	108.2	96.7	92.0
교육	7,343	10,539	7,571	11,402	7,078	9,697	103.1	108.2	96.4	92.0
의료 및 보건	2,891	5,007	3,000	5,426	2,782	4,574	103.8	108.4	96.3	91.3
사회복지사업	604	973	635	1,065	589	907	105.2	109.5	97.5	93.3
문화서비스	353	701	367	757	342	645	104.0	108.0	96.8	92.0
오락서비스	581	949	601	1,022	562	873	103.5	107.7	96.7	92.0
위생서비스	337	536	350	580	326	493	103.7	108.2	96.7	92.0
대개인서비스	1,276	2,053	1,322	2,221	1,231	1,885	103.7	108.2	96.5	91.8
사회단체	83	132	86	142	80	121	103.6	108.1	96.6	92.0

제4절 산업별 고용 파급 영향

민간소비는 국내생산을 유발시키고 국내생산은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최종수요 한 단위의 증가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의 규모는 고용유발계수로 대별되며,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해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소비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2020년 1,170만 명에서 2030년 1,163만 명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망결과를 보이며, 서비스업 부문이 고용을 주도할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는 2020년 797만 명에서 2030년 823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SOC 부문의 고용은 2020년 10만 명에서 2030년 12만 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제조업과 농림어업 부문의 고용규모는 다소 축소되어 각각 2020년 135만 명, 227만 명에서 2030년 126만 명, 20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여타 산업에 비해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생산요소로서 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중고위, 중저위 간 시나리오별 고용유발효과를 비교해보면, 전산업 대비 농림어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SOC는 저위에서 소폭 감소, 고위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계측되어 전체 가구의 규모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제조업은 저위에서 고위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유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가구주의 비중 감소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전산업 평균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7〉 4대 산업 고용유발효과 전망

(단위: 만 명, %)

전체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		비율(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전산업	1,170	1,163	1,212	1,257	1,131	1,070	103.6	108.1	96.6	92.0
농림어광업	227	202	235	217	219	184	103.4	107.7	96.2	91.4
제조업	135	126	140	137	131	117	103.7	108.1	96.8	92.2
SOC	10	12	11	13	10	11	103.8	108.2	96.6	91.9
서비스업	797	823	826	890	771	758	103.7	108.2	96.7	92.1

제조업 세부 업종별 고용유발 효과는 식료품, 의복, 가죽, 모피,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도가 높은 소비재업종에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은 2020년 30만 명에서 2030년 32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의복은 2020년 27만 명에서 2030년 22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식료품, 의약품, 고무 플라스틱 제품 등의 일부 업종에서의 고용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 업종에서 고용 규모는 유지 및 감소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부문의 기계화 진전, 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노동력이 대체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산유발효과는 유지되는 반면 고용창출 효과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별 중위대비 비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고위 시나리오에서, 의복, 목재 및 나무 제품, 도기 및 자기 제품, 금속제품, 일반산업용기계, 특수산업용기계, 전기기계 및 장치, 자동차 등은 저위 시나리오에서 전산업 대비 높은 수준의 고용유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98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표 4-8〉 제조업 고용유발효과 전망

(천 명, %)

제조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식료품	301	321	312	346	291	295	103.6	108.0	96.6	91.9
음료품	39	30	40	32	37	27	103.8	108.2	96.9	92.3
담배	7	6	7	6	7	5	103.0	107.3	96.2	91.5
섬유	53	51	55	55	52	47	103.7	108.1	96.9	92.5
의복	272	218	282	236	264	202	103.7	108.0	96.9	92.5
가족, 모피, 신발	56	53	58	58	54	50	104.3	108.8	97.6	93.3
목재 및 나무제품	11	10	12	11	11	9	103.6	107.9	96.6	92.0
펄프 및 종이	34	29	35	31	33	26	103.8	108.3	96.8	92.2
인쇄 및 복제	30	24	31	26	29	22	103.8	108.4	96.8	92.3
석유 및 석탄제품	8	8	8	8	7	7	103.4	107.7	96.5	91.9
기초화학제품	4	4	4	4	4	4	103.7	108.1	96.7	92.1
합성수지 및 고무	6	6	6	7	5	6	103.7	108.1	96.8	92.3
화학섬유	1	1	1	1	1	1	103.7	108.1	96.9	92.5
비료 및농약	8	6	9	6	8	5	103.4	107.8	96.2	91.3
의약품	36	37	38	40	35	34	104.1	108.8	96.4	91.5
화장품	27	27	28	29	26	25	103.8	108.1	96.9	92.4
기타화학제품	10	9	10	10	9	9	103.7	108.1	96.8	92.3
고무,플라스틱제품	66	68	68	74	63	63	103.6	108.0	96.7	92.2
유리 및 유리제품	5	5	5	5	5	5	103.7	108.2	96.7	92.1
도기 및 자기제품	8	10	8	10	8	9	103.4	107.7	96.6	92.2
기타비금속광물	2	1	2	1	2	1	103.8	108.2	96.7	92.0
철강	7	6	7	7	7	6	103.6	108.0	96.7	92.2
비철금속제품	2	2	2	2	2	2	103.7	108.1	96.7	92.1
금속제품	53	40	55	44	51	37	103.6	108.0	96.7	92.1
일반산업용기계	11	9	11	10	11	8	103.6	108.0	96.7	92.1
특수산업용기계	8	7	8	8	7	7	103.6	108.0	96.7	92.1
가전	31	30	32	32	30	27	103.2	107.6	96.2	91.4
방송, 통신기기	2	2	2	2	2	1	103.7	108.1	96.8	92.2
컴퓨터 및 사무기기	13	15	13	17	12	14	104.1	108.7	97.4	93.2
전기기계 및 장치	15	12	15	12	14	11	103.6	108.0	96.7	92.1

제조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디스플레이	1	1	1	1	1	1	103.4	107.8	96.4	91.8
반도체	1	1	1	1	1	1	103.6	108.1	96.6	92.0
기타전자부품	6	6	7	7	6	6	103.5	108.0	96.6	92.0
의료기기	10	7	11	7	10	6	104.0	108.9	96.6	91.8
정밀기기	8	8	9	8	8	7	103.7	108.0	96.8	92.2
자동차	67	56	69	61	64	52	103.6	107.8	96.9	92.5
조선	1	1	1	1	1	1	103.5	107.9	96.5	91.7
철도	0	0	0	0	0	0	103.8	108.2	96.9	92.3
항공기	1	1	1	1	1	1	103.8	108.2	96.9	92.2
기타수송기계	3	2	3	3	2	2	103.3	107.9	96.3	91.8

음료품, 섬유, 가죽, 모피, 신발, 펄프 및 종이, 인쇄 및 복제, 기초화학 제품, 합성수지 및 고무, 화학섬유, 화장품, 기타화학제품, 유리 및 유리 제품, 기타비금속광물, 비철금속제품, 방송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반도체, 철도, 항공기 등은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에서 모두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담배, 석유 및 석탄 제품, 비료 및 농약,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 기타수송기계 등은 낮은 수준의 고용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의 세부업종별 고용 유발효과는 음식 및 숙박, 교육, 개인서비스, 도소매업 등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음식 및 숙박업은 2020년 227만 명에서 2030년 230만 명으로, 동기간 대개인서비스는 112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은 2020년 99만 명에서 2030년 95만 명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출판 서비스, 통신 등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종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의 전반적인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 전반의 고용은 증가할 것이며, 우리경제의 고용을 견인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별 중위대비 비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료 및 보건, 대개인서비스, 방송, 주거서비스 등은 고위 시나리오에서, 금융 및 보험, 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등은 저위 시나리오에서 전산업 대비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운수 및 보관, 부동산서비스,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출판서비스, 영화, 통신, 정보서비스, 광고, 연구기관, 사업관련 전문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사회단체 등은 고위 및 저위 모두에서 전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유발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표 4-9〉 서비스업 고용유발효과 전망

(단위: 천 명, %)

서비스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도소매업	773	793	801	858	748	731	103.7	108.1	96.7	92.1
음식점, 숙박업	2,268	2,295	2,352	2,481	2,198	2,120	103.7	108.1	96.9	92.4
운수 및 보관	323	310	336	336	313	286	103.9	108.2	96.9	92.3
금융 및 보험	244	239	253	257	236	220	103.5	107.9	96.6	92.1
주거서비스	132	153	138	166	128	141	104.2	108.6	96.8	91.8
부동산서비스	104	121	108	131	101	112	103.7	108.2	96.7	92.0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	41	46	43	49	40	42	103.8	108.2	96.8	92.1
출판서비스	14	12	14	13	13	11	104.3	109.2	97.3	92.9
영화	96	101	100	110	93	93	104.2	108.7	97.2	92.7
방송	19	18	19	20	18	17	103.9	108.3	96.6	91.8
통신	153	144	159	156	148	134	103.7	108.1	96.9	92.5
정보서비스	101	106	104	115	98	98	103.9	108.4	97.0	92.6
광고	24	27	25	30	23	25	103.7	108.2	96.8	92.2
연구기관	400	454	415	491	387	418	103.7	108.2	96.7	92.0
사업관련전문 서비스	128	148	133	160	124	136	103.7	108.1	96.7	92.1
사업지원서비스	350	379	361	407	337	348	103.2	107.5	96.4	91.9
공공행정 및 국방	4	4	4	5	4	4	103.8	108.2	96.7	92.0

제4장 가계소비의 산업별 파급 영향 101

서비스업	중위		고위		저위		중위대비비율(중위=100)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교육	986	951	1,017	1,028	951	875	103.1	108.2	96.4	92.0
의료 및 보건	308	344	319	373	296	314	103.8	108.4	96.3	91.3
사회복지사업	236	270	248	296	230	252	105.2	109.5	97.5	93.3
문화서비스	25	32	26	35	25	30	104.0	108.0	96.8	92.0
오락서비스	73	80	75	86	70	73	103.5	107.7	96.7	92.0
위생서비스	33	32	35	35	32	30	103.7	108.2	96.7	92.0
대개인서비스	1,116	1,147	1,157	1,241	1,077	1,053	103.7	108.2	96.5	91.8
사회단체	19	18	20	20	18	17	103.6	108.1	96.6	92.0





제5장 결론

제1절 분석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5

제5장 결론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파급영향 가운데 미시적 측면에 주목하여 가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가계의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 → 가구구조의 변화 →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 산업별 생산 및 고용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일련의 파급과정을 인구고령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 및 전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통계청의 인구성장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가계소비를 전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총 지출규모에서는 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에 대한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력·가스·증기·수도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위 시나리오의 소비지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고위 시나리오에서 인구 및 가구 수와 고령층 가구주의 비중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주요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제조업부문에서 의약품, 식료품, 석유 및 석탄제품 등이, 서비스업부문에서는 의료 및 보건, 주거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업 등이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령화의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산업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와 같은 가계의 소비지출 전망치를 산업연관표형에 투영하여 산

업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전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근소한 차이로 제조업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나리오별 전망에서 제조업 생산유발규모의 차이는 미미하게 나타나 제조업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한국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에서도 서비스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전망이며 제조업과 농림어광업, SOC 등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하지만 서비스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파급효과가 과반을 넘어 향후 서비스업 부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에 따르면, 농림어광업은 전산업 평균대비 고위와 저위 모든 시나리오에서 낮은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위의 감소폭이 저위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SOC는 고위의 경우 전산업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위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광업과 SOC는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전체 가구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산업 대비 고위와 저위 모든 시나리오에서 크게 예측되었으며, 제조업 부문은 전산업 평균에 비해 고위에서 다소 작은 것으로, 저위에서 다소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부업종별 특성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식음료, 의복 등의 소비재 업종과 석탄 및 석유제품과 같이 주택 광열비용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서,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도소매, 음식·숙박, 보험, 주거서비스 등 민간 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업종에서 가계 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서비스업 부문의 의료 및 보건, 대개인서비스 등에서 시나리오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산

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상기와 같이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가구의 소비구조 전망과 이에 따른 산업부문 파급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 입각할 때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서비스업의 성장은 고용창출과 내수확대로 인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특성상 국내 인구규모에 따른 내수 시장의 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예상되는 국내 인구 증가 정체는 수출지향형 경제구조를 대체하는데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서비스업 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제조업 부문의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수출로 연계되는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가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차이 등을 고려한 시장차별화 전략과 함께, 서비스업 부문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촉진 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과 함께 대외 의존형 생산, 수출 구조의 개편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둘째, 고령화 확대에 따른 가구 소비의 변화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의료 및 보건, 대개인 서비스 등이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산업은 이미 고령친화산업으로 분류되

어 다수의 연구와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산업들은 고령화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는 주먹구구식 지원은 정부정책의 효과를 평가절하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에 앞서 고령화 측면 외에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전체 인구 측면의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은 고령친화 산업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원의 성격을 고령화에 따른 지원과 전체 인구규모의 측면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셋째,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경제전반에서 진전되고 있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서비스업 부문이 고용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여 고용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개인서비스 등 보건·사회복지 부문에서 비교적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산업현장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 인력의 활용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수출주력 제조업 부문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고령층과 청·장년층을 연계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 제조업 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넷째,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초래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지원을 통해 고령화를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은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초래할 가능성도 배재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산업·경제적 시각과 사회·복지·문화 등의 시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고령

화를 바라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화를 바라볼 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인구구조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하며, 그 효과가 몇 세대에 걸쳐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경우도, 한 세대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단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밝히 바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시각이 요구되므로,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경우는 출산율 제고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육아 교육 등 출산 이후의 단계와 연계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및 가구와 가구의 산업별 소비규모 전망을 위해 현재의 경제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모형을 구축한 정태적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상기의 방법론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변화해 가는 추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정확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미래를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구조와 인구구조의 특성상 다양한 거시변수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동태적 접근이 보다 적절한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거시변수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동태적 접근법에 대한 시도는 향후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 김동석(2006), 「인구구조 고령화와 소비구조」, 한국개발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pp. 1-50.
- 김형석(2002), 「가구주올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3권 1호, p.67.
- 안해일(2008), 「다항로지스틱회귀를 이용한 장래 가구주의 성별 연령대별 구성비 추계」, 2008년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 윤재호·김현정(2011),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분석」, 경제분석 제17권 제1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pp. 1-44.
- 이진면·민성환·정운선·김바우·김재진·이용호·한정민(2012),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 _____ (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 _____ (2012a),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
- _____ (2012b), 「2012년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한국은행(2007), 「산업연관분석해설」.
- _____ (2008), 「2005년 산업연관표(실측표)」.
- _____ (2012),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 황상필(2009),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working paper 제 413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Albuquerque, Paula C. and João C. Lopes(2010), Economic Impacts of Ageing: an Inter-industry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37, No. 12, pp. 970-986.
- Ando, A. and Modigliani, F. (19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pp. 55-84.

- Henning Bohn(2003), Will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remain viable as the U.S. population is aging? An update, Mime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Statistisches Bundesamt(2009), Input-Output-Rechnung 2006, Volk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en.
- Deaton, A. S. and J. Muellbauer(1980),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70, pp. 312-326.
- Dewhurst(2006), Estimating the Effect of Projected Household Composition Change on Production in Scotland, working paper No.186, University of Dundee, Department of Economic Studies.
- Fougere et al. (2007), Heterogeneity in Consumer Price Stickines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Volume 25, Issue 3.
- Juhn, C. and S. Potter(2006), *Chang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0, No. 3, pp. 27-46.
- Kronenberg, Tobias(2009),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on Energy Use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Germany, *Ecological Economics* 68, pp. 2637-2645.
- Lührmann(2005), Population Aging and the Demand for Goods&Services, Mimeo, University of Mannheim.
- Miller and Blair(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odigliani and Brumberg(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sumption Function: in K. K. Kurihara (ed.), *Post-Keynesian Economic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77-319.
- Munnell and Sunden(2003), *Death and Dollars: The Role of Gifts and Bequest in Americ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Nabil et al.(2008), Inter-temporal and Inter-Industry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A General Equilibrium Assessment for Canada,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HRSDC).
- Paula and João(2010), Economic Impacts of Ageing: An Interindustry Approach,
- Volz(2008), Aging, Labor Supply and Consumption-Sectoral Effects of Demographic Change in Germany, *Perdue*.
- Wakabayashi, Masayo(2001), Household's preference related with its life cycle profile. *Denryoku keizai kenkyū* 45: 17-34.
- Wakabayashi, Masayo(2002), Estimation of an AIDS-type consumption model with age effects, *Denryoku keizai kenkyū* 48: 45-54.



부록 <<

〈부록 1〉 가계동향조사 가계지출 부문 행복분류 체계(2009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부항목
가계 지출 (418)	소비 지출 (394)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129)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 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및 담배 (8)	주류, 담배
		의류 및 신발 (29)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 및 수도광역 (22)	실제주거비, 의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기타주거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53)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13)	의약품,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기,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23)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통신(7)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44)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24)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음식·숙박(8)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32)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비소비 지출 (24)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 및 부담금,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자료: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2011.8), p41 참조

116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록 2> KIET78산업과 가계동향조사의 소비비목 연계표

KIET78		가계동향조사 (품목)
1	작물	곡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감귤류, 참외, 수박, 딸기, 바나나, 기타과일, 배추, 상추,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깻잎, 부추, 무, 당근, 감자, 고구마, 콩나물, 오이, 풋고추, 호박, 가지, 토마토, 파, 양파, 마늘, 기타채소
2	축산물	육류
3	임산물	도라지, 버섯
4	수산물	신선수산물, 김, 미역
10	식료품	곡물가공품, 빵및떡류, 육류가공품, 열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알,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기타해조류, 당류및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11	음료품	커피및차, 주스및기타음료, 주류
12	담배	담배
13	섬유	직물, 실류, 실내장식, 침구류, 수건커튼, 기타가정용섬유
14	의복	남성용외의, 여성용외의 남학생교복, 여학생교복, 와이셔츠, 남방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및조끼, 운동복, 아동용외의, 기타외의, 내의, 양말및스타킹, 모자, 넥타이
15	가죽, 모피, 신발	신발, 가방
17	펄프 및 종이	벽지, 화장지
18	인쇄 및 복제	기타인쇄물
19	석유 및 석탄제품	등유, 경유연료, 연탄, 운송기구연료비
24	의약품	살충약품및용품, 의약품, 기타의약품
25	화장품	세탁용세제, 주방및청소용세제, 치약, 세면비누, 샴푸및린스, 화장품
26	기타화학제품	기록매체
29	도기 및 자기제품	식기류, 컵및다기
33	금속제품	숯, 후라이팬, 냄비, 칼및수저류, 가정용전동공구, 설비관련기구, 기타소형공구및가사용품
36	가전	가전및가정용기기, 텔레비전, 기타영상음향기기, 이미용기기
38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정보처리장치
39	전기기계 및 장치	조명기구, 건전지, 전구
43	의료기기	보건의료용품기구
44	정밀기기	사진광학장비, 손목시계, 장식용시계
45	자동차	자동차구입
49	기타수송기계	기타운송기구구입
50	가구, 기타제조제품	바닥재, 기타주택유지및수선재, 장롱, 화장대, 침대, 장식장, 소파, 책상, 의자, 식탁및식탁의자, 밥상, 기타가구, 중고가구, 기타주방용품, 세탁·청소용구, 기타가사소모품, 오락문화내구재, 악기기구, 장난감및취미용품, 캠핑및운동관련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련용품, 문구, 칫솔, 기타이미용용품, 장신구, 종교용품, 혼례및장례용품, 기타개인용품

KIET78		가계동향조사 (품목)
51	전력	전기료
52	가스, 증기, 수도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LPG연료, 공동주택난방비, 기타연료비
55	음식점및숙박업	음식·숙박
56	운수및보관	주차료, 통행료, 기타개인교통,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57	금융및보험	보험, 기타금융
58	주거서비스	실제주거비, 설비·수리서비스, 세놓는주택수선, 기타주거관련서비스
59	부동산서비스	자가관련부동산수수료, 기타부동산수수료
60	기계장비및용품임대	오락용품대여
61	출판서비스	서적, 신문, 잡지
62	영화	공연및극장
63	방송	방송수신료
64	통신	통신
65	정보서비스	영상및정보처리서비스, 콘텐츠
69	사업지원서비스	단체여행비
71	교육	교육
72	의료및보건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73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74	문화서비스	관람시설이용, 독서시설이용, 문화강습, 기타문화서비스, 복권
75	오락서비스	운동시설이용, 노래방이용, PC방이용, 기타오락시설이용, 운동경기관람
76	위생서비스	쓰레기처리
77	대개인서비스	의복관련서비스신발서비스, 가구·조명및장식서비스, 가정용섬유관련서비스, 가전관련서비스, 가사서비스, 운송기구유지및수리, 운전교습비, 오락문화내구 재유지및수리, 화훼및애완동물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개인용품서비스, 일반수수료, 응시료, 혼례및장제례비, 기타서비스, 유흥비

118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록 3〉 K1ET78부문 가계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산업		1990	2000	2010	산업		1990	2000	2010
1	작물	10.3	6.3	4.3	40	영상음향통신기기	0.0	0.0	0.0
2	축산물	3.5	2.6	2.0	41	의료기기	0.0	0.0	0.0
3	임산물	0.1	0.1	0.1	42	정밀기기	0.0	0.0	0.0
4	수산물	2.7	2.0	1.3	43	자동차	0.3	0.4	0.4
5	농림어업서비스	0.0	0.0	0.0	44	조선	0.4	0.1	0.1
6	석탄	0.0	0.0	0.0	45	철도	5.6	2.4	2.9
7	원유 및 천연가스	0.0	0.0	0.0	46	항공기	0.0	0.0	0.0
8	금속광석	0.0	0.0	0.0	47	기타수송기계	0.0	0.0	0.0
9	비금속광석	0.0	0.0	0.0	48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0.0	0.0	0.0
10	식료품	7.9	6.1	6.2	49	전력	0.1	0.1	0.1
11	음료품	1.3	1.1	1.2	50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	3.4	2.7	2.3
12	담배	1.0	1.1	0.8	51	수도	1.6	2.1	2.4
13	섬유	1.1	0.6	0.4	52	건설	1.3	2.3	3.3
14	의복	8.0	5.6	5.3	53	도소매업	0.0	0.0	0.0
15	가죽, 모피, 신발	1.5	1.0	1.2	54	음식점및숙박업	0.0	0.0	0.0
16	목재 및 나무제품	0.0	0.0	0.0	55	운수및보관	7.4	11.4	11.9
17	펄프 및 종이	0.3	0.2	0.2	56	금융및보험	3.9	4.1	3.3
18	인쇄 및 복제	0.0	0.0	0.0	57	주거서비스	1.5	1.6	2.4
19	석유 및 석탄제품	2.5	5.5	5.4	58	부동산서비스	4.4	5.0	7.1
20	기초화학제품	0.0	0.0	0.0	59	기계장비및용품임대	0.1	0.1	0.1
21	합성수지및합성고무	0.0	0.0	0.0	60	출판서비스	0.1	0.0	0.0
22	화학섬유	0.0	0.0	0.0	61	영화	1.5	1.3	0.9
23	비료및농약	0.0	0.0	0.0	62	방송	0.1	0.1	0.2
24	의약품	3.2	2.5	2.7	63	통신	0.2	0.4	0.5
25	화장품	1.1	1.3	1.5	64	정보서비스	2.1	5.1	5.9
26	기타화학제품	0.1	0.1	0.0	65	광고	0.1	0.1	0.2
27	고무, 플라스틱제품	0.0	0.0	0.0	66	연구기관	0.0	0.0	0.0
28	유리 및 유리제품	0.0	0.0	0.0	67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0	0.0	0.0
29	도기 및 자기제품	0.2	0.1	0.1	68	사업지원서비스	0.0	0.0	0.0
30	기타비금속광물제품	0.0	0.0	0.0	69	공공행정및국방	0.5	0.5	0.7
31	철강	0.0	0.0	0.0	70	교육	0.0	0.0	0.0
32	비철금속제품	0.0	0.0	0.0	71	의료및보건	8.0	8.8	8.0
33	금속제품	0.4	0.3	0.2	72	사회복지사업	3.0	4.1	5.0
34	일반산업용기계	0.0	0.0	0.0	73	문화서비스	0.3	0.3	1.3
35	특수산업용기계	0.0	0.0	0.0	74	오락서비스	0.5	0.3	0.4
36	가정용전기기기	2.7	1.8	1.5	75	위생서비스	0.2	0.6	0.6
37	컴퓨터 및 사무기기	0.0	0.0	0.0	76	대개인서비스	0.1	0.1	0.1
38	전기기계 및 장치	0.3	1.1	0.4	77	수리서비스	4.9	6.4	4.7
39	반도체 및 전자부품	0.1	0.1	0.1	78	사회단체	0.0	0.0	0.0

〈부록 4〉 산업별 가계소비지출 비중 변화

(단위: %)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작물	19세 이하	3.6	3.6	0.9	축산물	19세 이하	2.2	2.8	0.7
	20~24세	5.2	4.0	2.5		20~24세	3.6	3.8	2.9
	25~29세	5.6	5.2	3.8		25~29세	5.4	5.1	4.6
	30~34세	6.4	5.6	5.3		30~34세	6.4	6.1	6.3
	35~39세	7.9	7.0	6.9		35~39세	8.0	7.5	8.1
	40~44세	9.0	7.7	7.7		40~44세	8.8	8.6	10.0
	45~49세	9.6	7.9	8.4		45~49세	9.2	8.4	10.7
	50~54세	9.3	8.1	8.7		50~54세	9.5	8.9	9.8
	55~59세	8.6	8.4	9.3		55~59세	10.1	8.8	9.7
	60~64세	8.9	8.3	9.9		60~64세	10.2	8.8	9.2
	65~69세	8.1	7.9	9.9		65~69세	8.9	7.5	8.6
	70~74세	6.0	6.5	9.0		70~74세	4.8	6.4	7.2
	75~79세	7.4	6.7	7.4		75~79세	9.1	7.1	5.2
	80~84세	4.4	7.8	5.9		80~84세	3.8	7.3	3.8
85세 이상	0.0	5.3	4.4	85세 이상	0.0	3.1	3.1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임산물	19세 이하	1.4	2.6	0.5	수산물	19세 이하	2.3	3.1	0.2
	20~24세	5.0	3.5	2.3		20~24세	3.9	3.3	2.1
	25~29세	6.0	5.7	4.1		25~29세	5.0	4.5	3.3
	30~34세	6.8	6.8	6.0		30~34세	6.3	5.3	4.6
	35~39세	7.6	7.8	7.8		35~39세	7.9	6.6	6.2
	40~44세	8.7	9.1	8.3		40~44세	8.8	7.2	7.0
	45~49세	10.1	9.6	9.1		45~49세	8.5	7.5	7.8
	50~54세	10.4	9.0	9.5		50~54세	10.0	8.7	9.3
	55~59세	9.7	9.8	10.4		55~59세	9.8	9.1	10.9
	60~64세	11.0	9.3	9.4		60~64세	9.9	8.8	11.3
	65~69세	10.0	8.0	9.4		65~69세	9.7	8.5	10.5
	70~74세	4.7	5.8	8.3		70~74세	6.3	6.7	9.3
	75~79세	6.3	6.6	6.5		75~79세	9.7	7.8	7.5
	80~84세	2.3	5.5	4.6		80~84세	2.1	7.5	6.7
85세 이상	0.0	1.0	3.7	85세 이상	0.0	5.4	3.5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식료품	19세 이하	4.2	5.3	2.5	음료품	19세 이하	4.0	5.5	2.9
	20~24세	5.4	5.6	4.9		20~24세	5.6	6.0	6.3
	25~29세	6.9	7.0	6.9		25~29세	7.3	7.4	9.3
	30~34세	8.2	8.7	9.2		30~34세	7.6	7.9	10.4
	35~39세	9.1	9.2	10.4		35~39세	8.6	8.8	10.2
	40~44세	9.9	9.2	10.6		40~44세	8.5	8.6	9.5
	45~49세	9.5	8.1	9.8		45~49세	7.9	8.0	9.2
	50~54세	9.0	7.4	8.2		50~54세	8.2	8.1	8.6
	55~59세	7.7	7.1	7.3		55~59세	8.0	7.8	7.9
	60~64세	7.3	7.0	7.1		60~64세	7.3	7.4	6.6
	65~69세	6.4	5.9	6.2		65~69세	6.4	5.4	5.5
	70~74세	4.9	5.1	5.5		70~74세	3.6	4.9	4.1
	75~79세	7.5	5.9	4.7		75~79세	11.1	6.5	3.6
	80~84세	4.0	5.5	4.1		80~84세	5.7	4.2	2.9
85세 이상	0.0	3.0	2.6	85세 이상	0.0	3.3	3.0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담배	19세 이하	2.6	2.2	0.0	섬유	19세 이하	2.4	5.9	1.2
	20~24세	5.0	5.1	5.1		20~24세	5.9	4.9	3.7
	25~29세	9.3	7.2	8.2		25~29세	8.7	8.3	12.5
	30~34세	7.8	8.1	8.9		30~34세	6.5	7.6	11.8
	35~39세	8.8	8.2	9.1		35~39세	7.2	7.3	9.5
	40~44세	8.2	8.2	9.9		40~44세	8.7	6.2	8.5
	45~49세	7.3	8.2	9.7		45~49세	7.5	6.1	8.9
	50~54세	9.9	9.3	11.8		50~54세	9.9	11.1	10.3
	55~59세	10.5	9.2	10.9		55~59세	17.1	7.5	10.3
	60~64세	10.3	8.1	8.0		60~64세	10.2	5.6	8.6
	65~69세	8.0	6.6	7.2		65~69세	7.7	4.2	6.5
	70~74세	3.5	3.9	4.3		70~74세	2.6	2.5	4.2
	75~79세	6.8	4.8	4.0		75~79세	5.4	1.9	1.9
	80~84세	1.9	4.1	2.6		80~84세	0.2	20.5	1.8
85세 이상	0.0	6.7	0.3	85세 이상	0.0	0.4	0.3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의복	19세 이하	4.7	4.0	3.2	가족, 모피, 신발	19세 이하	5.8	6.0	3.5
	20~24세	6.4	6.5	8.5		20~24세	7.6	8.5	7.7
	25~29세	6.3	7.6	9.4		25~29세	5.8	7.8	11.1
	30~34세	6.7	7.9	10.8		30~34세	6.8	7.9	12.6
	35~39세	7.9	8.5	10.3		35~39세	7.9	8.7	10.8
	40~44세	8.5	9.4	10.3		40~44세	9.3	9.8	10.9
	45~49세	9.0	8.7	10.9		45~49세	9.9	9.0	11.7
	50~54세	10.6	10.0	10.0		50~54세	10.0	8.7	9.8
	55~59세	10.4	10.1	8.4		55~59세	8.1	8.2	7.2
	60~64세	9.8	8.2	6.5		60~64세	7.8	6.7	4.9
	65~69세	8.1	5.0	4.7		65~69세	5.7	4.3	3.9
	70~74세	4.4	3.4	2.9		70~74세	5.0	4.1	2.6
	75~79세	4.7	3.6	2.0		75~79세	6.9	3.4	1.6
	80~84세	2.4	5.0	1.2		80~84세	3.4	5.0	1.1
85세 이상	0.0	2.3	0.9	85세 이상	0.0	2.0	0.7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목재 및 나무	19세 이하	0.0	0.0	0.0	펄프 및 종이	19세 이하	3.3	6.0	1.7
	20~24세	0.0	0.0	0.0		20~24세	6.4	5.7	5.4
	25~29세	0.0	0.0	0.0		25~29세	6.4	7.4	8.4
	30~34세	0.0	0.0	0.0		30~34세	7.5	7.9	11.7
	35~39세	0.0	0.0	0.0		35~39세	8.2	8.0	12.1
	40~44세	0.0	0.0	0.0		40~44세	9.8	8.2	10.2
	45~49세	0.0	0.0	0.0		45~49세	9.8	8.9	9.9
	50~54세	0.0	0.0	0.0		50~54세	9.2	8.0	8.8
	55~59세	0.0	0.0	0.0		55~59세	8.1	7.1	7.4
	60~64세	0.0	0.0	0.0		60~64세	7.1	6.7	6.5
	65~69세	0.0	0.0	0.0		65~69세	7.3	5.0	5.2
	70~74세	0.0	0.0	0.0		70~74세	4.8	5.6	4.1
	75~79세	0.0	0.0	0.0		75~79세	9.9	3.9	3.5
	80~84세	0.0	0.0	0.0		80~84세	2.3	9.4	3.0
85세 이상	0.0	0.0	0.0	85세 이상	0.0	2.1	2.1		
계	0.0	0.0	0.0	계	100.0	100.0	100.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인쇄 및 복제	19세 이하	6.7	2.0	0.0	석유 및 석탄	19세 이하	3.0	2.6	0.0
	20~24세	8.9	13.3	12.5		20~24세	4.8	4.8	2.7
	25~29세	4.5	10.5	10.4		25~29세	5.8	7.8	7.5
	30~34세	4.1	11.4	12.6		30~34세	6.8	9.3	11.5
	35~39세	5.9	7.3	11.0		35~39세	8.1	10.1	11.5
	40~44세	3.2	7.3	5.7		40~44세	9.0	10.1	11.2
	45~49세	5.4	7.6	3.5		45~49세	9.8	9.4	11.3
	50~54세	7.7	8.5	9.5		50~54세	9.2	9.8	11.3
	55~59세	8.9	12.8	16.4		55~59세	8.7	9.1	10.0
	60~64세	14.9	12.1	5.7		60~64세	7.5	8.0	7.4
	65~69세	5.0	2.6	10.1		65~69세	9.1	4.8	5.7
	70~74세	2.2	2.0	1.8		70~74세	6.1	4.6	3.8
	75~79세	1.4	0.7	0.5		75~79세	7.8	3.4	2.4
	80~84세	21.1	2.1	0.4		80~84세	4.3	4.6	1.7
85세 이상	0.0	0.0	0.0	85세 이상	0.0	1.7	1.9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의약품	19세 이하	1.5	2.9	0.4	화장품	19세 이하	4.8	6.2	3.2
	20~24세	3.3	3.4	3.7		20~24세	9.2	8.1	8.2
	25~29세	5.3	6.0	5.8		25~29세	7.5	7.8	10.5
	30~34세	6.8	7.1	7.5		30~34세	8.0	8.0	10.0
	35~39세	7.3	6.3	7.5		35~39세	8.7	8.3	9.8
	40~44세	8.6	6.7	6.4		40~44세	8.4	8.6	9.9
	45~49세	8.3	6.5	6.8		45~49세	8.8	9.3	10.7
	50~54세	8.6	7.7	6.4		50~54세	9.9	9.1	10.6
	55~59세	8.5	8.0	7.1		55~59세	9.3	8.0	8.1
	60~64세	7.4	7.8	7.8		60~64세	7.4	6.6	6.3
	65~69세	7.4	7.6	7.6		65~69세	5.9	4.7	4.2
	70~74세	11.9	7.1	8.5		70~74세	3.5	4.0	3.3
	75~79세	12.9	7.5	8.4		75~79세	6.0	5.2	2.5
	80~84세	2.2	9.2	8.1		80~84세	2.6	4.3	1.8
85세 이상	0.0	6.3	8.0	85세 이상	0.0	1.9	0.9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기타 화학 제품	19세 이하	10.7	8.2	0.0	도기 및 자기 제품	19세 이하	5.2	5.7	2.7
	20~24세	9.1	9.2	14.0		20~24세	11.7	6.1	4.2
	25~29세	9.9	9.1	17.1		25~29세	7.4	9.9	13.1
	30~34세	8.6	10.3	14.2		30~34세	8.3	8.5	16.9
	35~39세	7.9	8.7	12.7		35~39세	7.9	9.2	11.0
	40~44세	7.9	10.0	8.5		40~44세	6.8	9.9	6.6
	45~49세	6.2	8.1	9.8		45~49세	9.4	8.2	9.2
	50~54세	8.0	6.9	8.1		50~54세	14.7	9.4	10.9
	55~59세	5.6	9.9	7.5		55~59세	6.8	9.7	9.6
	60~64세	5.2	5.2	1.6		60~64세	10.6	9.3	5.2
	65~69세	4.3	4.3	2.7		65~69세	7.7	4.4	3.9
	70~74세	1.1	2.4	1.8		70~74세	0.8	1.9	3.1
	75~79세	3.5	2.4	1.9		75~79세	2.0	1.2	1.1
	80~84세	12.1	2.9	0.0		80~84세	0.8	6.0	1.2
85세 이상	0.0	2.5	0.0	85세 이상	0.0	0.8	1.3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22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금속 제품	19세 이하	2.5	2.9	0.4	가전	19세 이하	3.4	2.8	2.4
	20~24세	4.8	3.5	3.0		20~24세	6.1	3.6	10.5
	25~29세	5.6	6.8	6.8		25~29세	7.9	7.2	5.9
	30~34세	8.5	8.1	8.3		30~34세	8.0	5.9	9.6
	35~39세	8.0	7.3	8.3		35~39세	8.0	7.5	8.6
	40~44세	10.9	7.6	7.9		40~44세	9.6	7.1	8.6
	45~49세	11.2	10.4	9.4		45~49세	7.0	6.6	9.4
	50~54세	11.0	12.2	9.1		50~54세	11.2	10.1	9.4
	55~59세	9.3	8.4	9.5		55~59세	9.2	9.5	8.1
	60~64세	7.5	8.2	8.0		60~64세	12.6	7.1	5.1
	65~69세	10.0	8.2	8.8		65~69세	4.9	5.0	5.9
	70~74세	5.0	5.0	7.1		70~74세	1.3	2.8	5.1
	75~79세	4.9	4.8	3.2		75~79세	10.7	6.4	2.9
	80~84세	0.8	4.0	6.8		80~84세	0.0	17.6	3.0
	85세 이상	0.0	2.6	3.6		85세 이상	0.0	0.9	5.4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컴퓨터 및 사무 기기	19세 이하	0.7	16.9	3.5	전기 기계 및 장치	19세 이하	4.6	2.2	3.1
	20~24세	0.7	5.7	7.8		20~24세	6.4	5.2	2.1
	25~29세	3.2	6.6	15.4		25~29세	5.5	9.3	8.5
	30~34세	4.9	7.4	9.5		30~34세	5.8	7.8	11.1
	35~39세	6.1	10.5	8.4		35~39세	11.6	9.9	11.4
	40~44세	11.8	13.0	11.0		40~44세	12.8	13.3	10.2
	45~49세	8.9	11.3	14.9		45~49세	9.6	10.9	10.0
	50~54세	10.2	6.6	12.4		50~54세	13.3	8.6	8.0
	55~59세	16.4	5.7	8.0		55~59세	8.0	7.6	6.3
	60~64세	5.3	3.5	3.2		60~64세	10.0	7.2	5.7
	65~69세	0.8	1.4	1.8		65~69세	5.4	5.4	4.8
	70~74세	30.0	1.4	1.4		70~74세	3.6	4.0	3.9
	75~79세	0.9	2.1	2.6		75~79세	2.9	2.6	4.0
	80~84세	0.1	7.7	0.1		80~84세	0.4	3.9	4.4
	85세 이상	0.0	0.1	0.0		85세 이상	0.0	2.2	6.5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의료 기기	19세 이하	2.2	11.4	6.0	정밀 기기	19세 이하	3.5	2.8	0.1
	20~24세	6.0	4.1	6.3		20~24세	4.0	14.1	16.8
	25~29세	4.6	4.4	6.4		25~29세	7.7	10.3	20.5
	30~34세	3.3	3.6	6.9		30~34세	5.3	9.9	15.1
	35~39세	6.2	3.4	7.1		35~39세	6.2	7.1	13.9
	40~44세	11.5	5.2	8.1		40~44세	5.0	7.5	6.3
	45~49세	10.6	5.7	8.1		45~49세	5.9	5.9	8.4
	50~54세	16.5	5.1	6.2		50~54세	11.2	10.1	8.3
	55~59세	9.6	7.0	5.7		55~59세	12.9	16.4	3.0
	60~64세	11.4	9.3	5.3		60~64세	19.2	6.2	2.7
	65~69세	7.4	8.5	6.2		65~69세	7.9	4.4	2.1
	70~74세	4.7	7.1	4.9		70~74세	1.1	1.8	1.1
	75~79세	6.0	5.9	7.2		75~79세	8.5	2.4	0.7
	80~84세	0.0	5.3	8.1		80~84세	1.6	1.1	0.7
	85세 이상	0.0	14.1	7.5		85세 이상	0.0	0.0	0.0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자동차	19세 이하	0.1	0.1	0.0	기타 수송 기계	19세 이하	0.0	0.0	0.0
	20~24세	4.2	7.9	17.0		20~24세	8.0	43.6	0.0
	25~29세	33.5	8.3	9.7		25~29세	4.5	17.7	5.9
	30~34세	9.0	10.9	13.2		30~34세	27.3	5.9	8.6
	35~39세	9.7	12.7	16.3		35~39세	9.1	8.6	11.2
	40~44세	7.0	11.2	8.8		40~44세	10.1	8.1	9.8
	45~49세	17.4	7.7	9.2		45~49세	11.7	4.8	7.3
	50~54세	3.8	10.8	9.6		50~54세	11.3	6.2	7.0
	55~59세	4.7	8.1	8.1		55~59세	9.3	1.9	2.4
	60~64세	10.2	9.5	4.4		60~64세	7.0	0.9	11.8
	65~69세	0.3	3.9	2.2		65~69세	0.0	1.5	4.1
	70~74세	0.1	4.1	1.2		70~74세	1.8	0.8	28.4
	75~79세	0.1	4.8	0.4		75~79세	0.0	0.0	1.5
	80~84세	0.0	0.2	0.0		80~84세	0.0	0.0	2.0
	85세 이상	0.0	0.1	0.0		85세 이상	0.0	0.0	0.0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가구, 기타 제조업 제품	19세 이하	3.7	3.7	2.6	전력	19세 이하	3.8	4.2	2.1
	20~24세	5.6	4.3	6.1		20~24세	4.7	4.8	4.9
	25~29세	5.6	8.3	10.7		25~29세	5.7	5.7	5.5
	30~34세	6.8	8.4	12.3		30~34세	6.1	6.5	6.8
	35~39세	10.4	9.6	11.7		35~39세	7.4	7.4	7.4
	40~44세	10.3	9.4	10.3		40~44세	8.4	8.1	8.5
	45~49세	10.4	6.4	8.7		45~49세	9.0	8.1	9.0
	50~54세	8.9	9.2	8.5		50~54세	8.8	8.5	9.2
	55~59세	8.4	7.6	7.1		55~59세	8.5	8.3	8.9
	60~64세	9.4	5.9	6.2		60~64세	7.6	8.1	8.3
	65~69세	7.5	4.9	5.0		65~69세	7.3	7.5	7.8
	70~74세	5.9	3.7	3.4		70~74세	7.3	6.0	7.0
	75~79세	5.8	2.9	2.6		75~79세	11.2	6.8	6.0
	80~84세	1.4	12.0	2.7		80~84세	4.3	6.3	5.6
	85세 이상	0.0	3.9	2.1		85세 이상	0.0	3.7	3.0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가스, 증기, 수도	19세 이하	4.1	3.5	1.4	음식점 및 숙박업	19세 이하	2.7	5.0	2.9
	20~24세	4.6	4.3	5.2		20~24세	6.7	7.3	6.6
	25~29세	5.5	6.8	7.2		25~29세	8.6	8.4	8.9
	30~34세	6.4	8.3	8.8		30~34세	7.4	8.7	10.1
	35~39세	7.7	9.1	10.1		35~39세	8.2	8.9	10.5
	40~44세	9.4	9.6	10.3		40~44세	8.2	9.4	11.4
	45~49세	9.2	8.9	9.9		45~49세	9.1	9.5	11.6
	50~54세	9.2	8.4	8.6		50~54세	11.7	10.1	10.8
	55~59세	8.5	8.0	8.0		55~59세	11.4	9.4	9.0
	60~64세	9.9	7.7	6.8		60~64세	9.8	7.5	6.3
	65~69세	6.6	7.0	6.2		65~69세	5.1	4.6	4.6
	70~74세	5.7	5.2	5.4		70~74세	2.2	3.4	3.1
	75~79세	11.8	6.1	4.5		75~79세	5.7	3.5	2.1
	80~84세	1.4	5.4	3.9		80~84세	3.1	3.0	1.3
	85세 이상	0.0	1.8	3.8		85세 이상	0.0	1.5	1.1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24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문수 및 보관	19세 이하	4.9	7.3	9.3	금융 및 보험	19세 이하	1.7	2.1	0.0
	20~24세	7.3	8.6	8.3		20~24세	3.0	4.4	3.1
	25~29세	7.4	7.5	7.8		25~29세	4.9	8.4	7.5
	30~34세	6.6	6.3	6.9		30~34세	6.4	10.9	11.8
	35~39세	6.6	5.4	6.6		35~39세	7.5	11.9	13.0
	40~44세	7.2	6.4	6.9		40~44세	6.9	11.7	13.0
	45~49세	8.4	8.4	9.1		45~49세	5.7	10.7	12.9
	50~54세	10.9	9.3	9.5		50~54세	7.3	10.2	12.0
	55~59세	9.2	9.4	8.9		55~59세	8.1	9.3	11.1
	60~64세	9.2	7.1	6.8		60~64세	6.2	7.2	7.4
	65~69세	5.4	5.9	5.5		65~69세	2.4	4.3	3.9
	70~74세	3.1	3.9	4.7		70~74세	0.4	3.9	2.0
	75~79세	6.2	4.9	3.5		75~79세	39.6	1.6	0.9
	80~84세	7.6	4.3	2.9		80~84세	0.0	3.0	0.3
85세 이상	0.0	5.2	3.2	85세 이상	0.0	0.4	1.0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주거 서비스	19세 이하	8.1	10.1	10.5	부동산서 비스	19세 이하	0.0	0.6	0.0
	20~24세	9.1	9.0	10.3		20~24세	5.1	2.2	16.8
	25~29세	8.1	8.5	8.4		25~29세	8.5	5.5	6.6
	30~34세	7.9	7.1	7.3		30~34세	7.3	5.9	14.4
	35~39세	7.9	7.7	7.3		35~39세	5.8	8.5	10.0
	40~44세	9.0	7.3	6.4		40~44세	20.0	12.9	6.3
	45~49세	9.1	8.6	6.4		45~49세	8.0	6.1	9.0
	50~54세	8.3	6.1	6.6		50~54세	22.1	6.2	11.0
	55~59세	7.7	6.4	5.7		55~59세	10.7	4.8	5.2
	60~64세	5.9	5.6	4.9		60~64세	6.5	5.4	7.5
	65~69세	4.9	6.0	4.8		65~69세	2.1	3.5	5.6
	70~74세	6.8	6.5	4.9		70~74세	4.0	2.6	7.4
	75~79세	4.9	4.0	5.8		75~79세	0.0	26.8	0.0
	80~84세	2.3	6.6	4.2		80~84세	0.0	9.0	0.1
85세 이상	0.0	0.5	6.6	85세 이상	0.0	0.0	0.0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기계 장비 및 용품 임대	19세 이하	7.1	10.7	1.2	출판 서비스	19세 이하	8.5	4.3	8.6
	20~24세	7.3	13.2	2.5		20~24세	7.0	6.8	5.8
	25~29세	14.5	13.5	8.0		25~29세	4.2	7.0	5.5
	30~34세	17.2	10.5	14.0		30~34세	4.8	8.6	11.4
	35~39세	11.8	7.0	22.2		35~39세	7.9	11.2	15.9
	40~44세	6.3	4.2	26.1		40~44세	11.1	12.9	15.9
	45~49세	4.2	4.4	14.3		45~49세	11.8	12.0	14.3
	50~54세	8.9	4.7	5.9		50~54세	11.1	9.2	8.2
	55~59세	4.2	5.4	2.7		55~59세	8.5	7.5	4.5
	60~64세	1.8	4.4	1.4		60~64세	4.4	5.5	3.0
	65~69세	1.9	2.4	0.3		65~69세	6.8	3.5	2.2
	70~74세	0.5	6.5	0.3		70~74세	4.1	3.5	1.8
	75~79세	14.3	2.2	1.1		75~79세	5.1	3.3	1.5
	80~84세	0.0	9.9	0.0		80~84세	4.7	2.7	1.2
85세 이상	0.0	1.2	0.0	85세 이상	0.0	2.1	0.3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영화	19세 이하	12.6	7.9	9.6	방송	19세 이하	1.9	5.0	2.2
	20~24세	14.2	12.8	15.8		20~24세	3.2	5.8	5.5
	25~29세	6.3	9.6	12.7		25~29세	4.3	6.7	6.7
	30~34세	3.2	6.3	10.3		30~34세	6.5	6.6	7.5
	35~39세	3.6	5.2	8.4		35~39세	10.7	6.7	7.5
	40~44세	6.3	6.2	9.7		40~44세	9.0	7.0	7.1
	45~49세	7.1	8.1	9.7		45~49세	9.0	7.1	7.4
	50~54세	10.3	10.2	8.6		50~54세	8.9	7.4	7.7
	55~59세	10.0	12.1	6.8		55~59세	8.5	7.6	7.9
	60~64세	5.8	6.5	3.7		60~64세	9.6	7.6	7.8
	65~69세	6.4	4.0	2.6		65~69세	7.1	7.4	7.3
	70~74세	6.9	3.8	1.8		70~74세	6.1	6.5	6.9
	75~79세	7.1	2.9	0.2		75~79세	11.5	5.6	6.7
	80~84세	0.0	3.7	0.2		80~84세	3.7	7.2	6.3
85세 이상	0.0	0.8	0.0	85세 이상	0.0	5.8	5.6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통신	19세 이하	3.4	6.9	2.7	정보 서비스	19세 이하	8.4	5.2	10.5
	20~24세	4.9	8.2	6.9		20~24세	6.4	9.9	15.3
	25~29세	6.9	7.9	9.9		25~29세	10.9	8.1	11.9
	30~34세	8.0	7.5	9.8		30~34세	9.3	12.4	9.2
	35~39세	8.0	7.7	9.7		35~39세	11.1	10.3	11.7
	40~44세	8.0	9.1	10.6		40~44세	8.4	10.8	10.6
	45~49세	8.9	9.9	11.3		45~49세	5.3	7.9	9.9
	50~54세	8.8	9.8	11.2		50~54세	8.3	7.7	6.6
	55~59세	9.7	8.6	9.1		55~59세	7.8	9.5	4.3
	60~64세	8.4	6.9	6.2		60~64세	8.2	5.9	3.7
	65~69세	7.3	4.4	4.5		65~69세	3.3	2.7	2.7
	70~74세	7.3	3.5	3.3		70~74세	1.3	2.2	1.4
	75~79세	7.2	4.2	2.3		75~79세	8.7	2.7	1.5
	80~84세	3.3	3.9	1.6		80~84세	2.6	3.5	0.7
85세 이상	0.0	1.6	0.9	85세 이상	0.0	1.2	0.0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사업 지원 서비스	19세 이하	1.6	3.7	1.6	교육	19세 이하	10.4	5.4	0.7
	20~24세	2.4	1.6	0.4		20~24세	5.7	7.2	3.4
	25~29세	4.8	3.4	9.5		25~29세	2.1	3.1	1.6
	30~34세	3.3	4.1	8.3		30~34세	3.1	5.9	5.2
	35~39세	6.2	5.4	7.3		35~39세	6.9	10.6	14.5
	40~44세	5.4	8.9	10.4		40~44세	12.1	14.3	24.0
	45~49세	6.3	6.4	10.8		45~49세	15.6	14.8	25.3
	50~54세	9.7	8.4	10.0		50~54세	11.6	10.5	15.2
	55~59세	7.1	19.1	9.0		55~59세	8.0	7.3	5.4
	60~64세	20.2	11.0	12.2		60~64세	3.1	4.3	1.6
	65~69세	15.7	12.6	10.2		65~69세	5.2	3.1	1.0
	70~74세	0.5	2.6	5.9		70~74세	4.8	2.9	0.9
	75~79세	16.6	4.3	2.6		75~79세	7.3	2.2	0.5
	80~84세	0.0	7.0	1.3		80~84세	4.1	3.5	0.6
85세 이상	0.0	1.5	0.4	85세 이상	0.0	5.0	0.0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26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산업	연령	1990	2000	2010
의료 및 보건 서비스	19세 이하	1.9	2.0	0.5	사회 복지 사업	19세 이하	0.9	0.3	0.0
	20~24세	3.8	4.3	1.7		20~24세	2.1	1.8	5.1
	25~29세	6.4	5.6	6.9		25~29세	5.1	14.5	12.8
	30~34세	7.2	6.5	7.7		30~34세	4.3	25.1	34.1
	35~39세	7.3	5.7	7.0		35~39세	4.5	16.0	28.4
	40~44세	7.2	5.3	6.4		40~44세	6.6	8.7	9.4
	45~49세	6.2	6.6	7.5		45~49세	6.0	3.5	1.7
	50~54세	8.1	6.9	8.2		50~54세	7.2	5.1	1.3
	55~59세	15.5	5.9	8.4		55~59세	14.0	7.3	1.1
	60~64세	7.3	7.6	7.6		60~64세	10.0	9.8	1.8
	65~69세	8.8	8.9	10.7		65~69세	34.5	3.0	2.0
	70~74세	8.7	7.0	8.5		70~74세	0.7	1.6	0.6
	75~79세	7.4	9.5	7.3		75~79세	4.0	0.5	1.7
	80~84세	4.3	10.2	7.6		80~84세	0.1	2.4	0.0
85세 이상	0.0	8.1	4.1	85세 이상	0.0	0.3	0.0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문화 서비스	19세 이하	4.1	6.2	0.2	오락 서비스	19세 이하	9.3	20.6	4.4
	20~24세	6.1	8.4	3.4		20~24세	8.5	9.4	11.6
	25~29세	5.1	6.8	11.5		25~29세	6.4	6.8	9.1
	30~34세	4.5	8.9	16.3		30~34세	7.3	5.6	8.1
	35~39세	5.1	8.6	11.1		35~39세	8.2	7.3	10.0
	40~44세	7.7	11.0	9.4		40~44세	11.2	7.5	10.4
	45~49세	11.1	12.4	10.4		45~49세	9.2	8.3	11.5
	50~54세	11.1	9.5	8.1		50~54세	7.7	8.5	10.2
	55~59세	9.2	8.5	6.5		55~59세	7.9	8.1	8.2
	60~64세	7.3	6.4	6.2		60~64세	3.1	5.6	6.6
	65~69세	3.9	2.8	6.2		65~69세	11.4	2.8	5.1
	70~74세	14.4	3.0	4.2		70~74세	2.8	2.5	1.9
	75~79세	8.2	2.8	3.1		75~79세	2.7	2.9	1.7
	80~84세	2.2	3.2	1.7		80~84세	4.6	2.9	0.7
85세 이상	0.0	1.6	1.7	85세 이상	0.0	1.1	0.5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위생 서비스	19세 이하	3.2	3.8	0.9	대개인 서비스	19세 이하	2.5	3.0	0.8
	20~24세	4.6	4.8	5.7		20~24세	4.8	3.8	2.7
	25~29세	5.7	6.4	7.8		25~29세	6.2	6.0	8.0
	30~34세	7.3	8.4	10.1		30~34세	5.6	5.3	10.0
	35~39세	7.9	9.0	10.2		35~39세	6.6	5.1	8.7
	40~44세	9.6	9.5	10.1		40~44세	7.3	6.2	7.4
	45~49세	9.7	8.1	8.6		45~49세	8.1	6.0	8.3
	50~54세	9.4	8.1	8.3		50~54세	10.4	9.0	8.9
	55~59세	7.9	7.4	7.6		55~59세	11.2	9.3	9.7
	60~64세	7.7	6.9	6.4		60~64세	11.1	10.1	7.4
	65~69세	8.0	6.9	6.3		65~69세	10.5	6.1	8.3
	70~74세	3.5	5.8	5.5		70~74세	3.0	4.6	4.9
	75~79세	13.7	7.4	4.1		75~79세	11.0	2.7	3.7
	80~84세	1.8	3.5	4.4		80~84세	1.8	7.4	5.4
85세 이상	0.0	4.0	4.0	85세 이상	0.0	15.4	5.5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부록 6〉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소비지출금액

(단위: 원)

구분	2000	2010	중위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19세 이하	1,390,390	1,100,940	2,163,822	2,743,687	2,163,822	2,743,687	2,163,822	2,743,687
20~24세	1,747,746	2,450,054	2,943,922	3,988,323	2,943,922	3,988,323	2,943,922	3,988,323
25~29세	1,979,077	3,168,596	5,800,999	9,017,377	5,800,999	9,017,377	5,800,999	9,017,377
30~34세	2,171,901	3,921,295	6,569,780	10,127,319	6,569,780	10,127,319	6,569,780	10,127,319
35~39세	2,423,271	4,304,009	6,917,552	10,454,907	6,917,552	10,454,907	6,917,552	10,454,907
40~44세	2,632,894	4,455,624	7,382,737	11,219,839	7,382,737	11,219,839	7,382,737	11,219,839
45~49세	2,597,540	4,596,623	7,855,584	12,298,910	7,855,584	12,298,910	7,855,584	12,298,910
50~54세	2,625,757	4,112,999	6,578,272	9,791,393	6,578,272	9,791,393	6,578,272	9,791,393
55~59세	2,447,370	3,418,396	5,850,632	8,824,119	5,850,632	8,824,119	5,850,632	8,824,119
60~64세	2,140,646	2,685,552	4,403,622	6,284,027	4,403,622	6,284,027	4,403,622	6,284,027
65~69세	1,623,176	2,352,290	3,713,136	5,423,365	3,713,136	5,423,365	3,713,136	5,423,365
70~74세	1,315,422	1,851,909	2,858,103	4,064,297	2,858,103	4,064,297	2,858,103	4,064,297
75~79세	1,332,799	1,489,158	2,466,826	3,463,856	2,466,826	3,463,856	2,466,826	3,463,856
80~84세	1,683,920	1,263,615	1,976,369	2,775,270	1,976,369	2,775,270	1,976,369	2,775,270
85세 이상	1,138,157	1,076,950	1,413,178	1,570,821	1,413,178	1,570,821	1,413,178	1,570,821
평균	1,950,004	2,816,534	4,592,969	6,803,167	4,592,969	6,803,167	4,592,969	6,803,167

〈부록 7〉 가구주 연령별 생산유발효과(경상)

(단위: 십억원)

구분	2000	2010	중위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19세 이하	2,035	1,358	2,571	3,334	2,879	4,232	2,308	2,388
20~24세	11,433	18,334	27,397	32,338	36,213	45,280	34,952	41,756
25~29세	38,616	55,587	104,135	134,050	114,784	155,852	108,464	140,055
30~34세	72,253	107,793	145,717	235,872	155,714	259,323	144,408	226,345
35~39세	94,571	153,840	204,480	298,963	214,289	327,326	198,544	278,826
40~44세	103,978	174,645	254,678	340,493	264,025	374,056	245,941	314,722
45~49세	78,936	188,238	305,139	448,327	312,458	483,903	292,726	409,880
50~54세	67,589	160,992	273,253	391,133	277,935	416,898	261,428	356,926
55~59세	53,439	101,245	266,405	442,921	267,986	463,205	252,532	399,826
60~64세	42,337	64,133	185,663	321,456	185,924	333,177	174,955	288,277
65~69세	23,471	47,251	110,221	270,272	110,502	279,637	103,414	240,515
70~74세	12,247	31,677	64,868	180,262	65,849	189,102	60,745	159,581
75~79세	7,336	17,070	43,280	98,838	45,635	108,066	40,897	87,610
80~84세	3,724	7,233	23,660	50,601	26,934	60,512	22,879	45,142
85세 이상	934	2,596	10,073	21,920	13,954	33,923	9,980	18,762
계	612,899	1,131,991	2,021,540	3,270,779	2,095,080	3,534,493	1,954,173	3,010,610

144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록 8> 가구주 연령별 생산유발효과(불변)

(단위: 십억원)

구분	2000	2010	중위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19세 이하	2,266	1,162	1,620	1,657	1,814	2,103	1,454	1,187
20~24세	12,886	15,497	17,168	16,040	22,693	22,459	21,903	20,711
25~29세	43,337	46,735	65,143	66,624	71,805	77,460	67,852	69,608
30~34세	81,572	89,984	90,515	116,414	96,725	127,988	89,702	111,712
35~39세	106,980	128,169	126,399	146,637	132,463	160,548	122,730	136,760
40~44세	117,650	145,632	157,245	166,504	163,017	182,917	151,851	153,902
45~49세	89,398	157,244	189,220	220,545	193,758	238,046	181,522	201,632
50~54세	76,192	134,640	170,179	193,916	173,094	206,690	162,814	176,957
55~59세	60,052	84,621	164,982	217,667	165,961	227,635	156,390	196,489
60~64세	47,593	53,494	114,134	155,924	114,294	161,610	107,551	139,830
65~69세	26,414	39,452	67,756	131,238	67,929	135,786	63,572	116,789
70~74세	13,825	26,454	39,695	86,750	40,295	91,004	37,171	76,797
75~79세	8,226	14,323	26,682	48,203	28,135	52,704	25,213	42,727
80~84세	4,135	6,057	14,624	24,659	16,648	29,489	14,141	21,999
85세 이상	1,057	2,187	6,256	10,814	8,667	16,735	6,199	9,255
계	691,583	945,650	1,251,619	1,603,590	1,297,296	1,733,172	1,210,066	1,476,354

<부록 9> 가구주 연령별 부가가치유발효과(경상)

(단위: 십억원)

구분	2000	2010	중위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19세 이하	843	594	1,093	1,399	1,224	1,776	981	1,002
20~24세	4,615	7,165	10,664	12,401	14,095	17,364	13,604	16,013
25~29세	14,746	21,407	38,780	49,851	42,746	57,959	40,393	52,084
30~34세	27,873	41,752	55,681	89,942	59,501	98,884	55,181	86,309
35~39세	37,297	61,692	81,766	119,291	85,689	130,609	79,393	111,256
40~44세	41,647	72,803	103,834	138,073	107,645	151,683	100,272	127,622
45~49세	32,286	78,505	126,708	186,272	129,747	201,053	121,553	170,298
50~54세	26,360	65,176	110,321	158,617	112,211	169,066	105,547	144,745
55~59세	20,716	39,452	102,595	170,576	103,204	178,388	97,252	153,979
60~64세	16,094	24,836	70,437	121,743	70,536	126,182	66,374	109,177
65~69세	9,218	18,445	42,969	105,364	43,079	109,015	40,316	93,764
70~74세	4,859	12,554	25,384	70,459	25,768	73,914	23,770	62,375
75~79세	2,868	6,964	17,268	39,370	18,208	43,046	16,317	34,898
80~84세	1,424	2,880	9,475	20,139	10,786	24,084	9,162	17,966
85세 이상	356	1,050	4,107	8,980	5,690	13,897	4,070	7,686
계	241,204	455,274	801,082	1,292,477	830,127	1,396,919	774,185	1,189,175

〈부록 10〉 가구주 연령별 부가가치유발효과(불변)

(단위: 십억원)

구분	2000	2010	증위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19세 이하	954	536	765	796	856	1,011	687	570
20-24세	5,274	6,466	7,677	7,351	10,147	10,293	9,794	9,492
25-29세	16,636	19,295	27,960	29,666	30,819	34,491	29,122	30,995
30-34세	31,791	37,335	39,394	52,278	42,096	57,475	39,040	50,166
35-39세	42,807	54,907	57,133	68,285	59,873	74,764	55,474	63,686
40-44세	47,935	64,652	72,404	78,845	75,061	86,617	69,920	72,877
45-49세	37,234	69,831	88,345	106,215	90,464	114,644	84,751	97,107
50-54세	30,081	58,442	78,002	92,119	79,339	98,187	74,627	84,063
55-59세	23,461	35,688	73,031	99,657	73,464	104,221	69,227	89,961
60-64세	18,208	22,555	50,169	71,039	50,239	73,629	47,275	63,707
65-69세	10,483	16,712	30,386	60,725	30,463	62,830	28,509	54,040
70-74세	5,543	11,404	17,892	40,282	18,163	42,258	16,755	35,661
75-79세	3,267	6,321	12,081	22,325	12,738	24,409	11,415	19,789
80-84세	1,620	2,604	6,600	11,340	7,513	13,561	6,382	10,117
85세 이상	415	949	2,852	5,038	3,951	7,797	2,825	4,312
계	275,710	407,699	564,688	745,962	585,186	806,187	545,804	686,541

〈부록 11〉 가구주 연령별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구분	2000	2010	증위		고위		저위	
			2020	2030	2020	2030	2020	2030
19세 이하	34,854	11,737	13,185	10,387	14,763	13,186	11,836	7,440
20-24세	195,459	161,556	158,313	115,081	209,256	161,137	201,970	148,598
25-29세	654,952	533,336	539,835	426,583	595,039	495,965	562,277	445,692
30-34세	1,229,457	1,091,916	822,998	828,496	879,457	910,869	815,604	795,032
35-39세	1,634,291	1,586,988	1,211,413	1,104,929	1,269,526	1,209,755	1,176,244	1,030,504
40-44세	1,841,422	1,840,057	1,499,154	1,242,841	1,554,175	1,365,351	1,447,725	1,148,775
45-49세	1,418,087	1,968,391	1,824,410	1,669,396	1,868,171	1,801,867	1,750,193	1,526,232
50-54세	1,216,296	1,646,803	1,588,298	1,410,899	1,615,510	1,503,839	1,519,565	1,287,508
55-59세	973,622	1,032,098	1,520,382	1,542,206	1,529,402	1,612,836	1,441,206	1,392,156
60-64세	780,933	667,293	1,050,511	1,097,899	1,051,983	1,137,933	989,919	984,579
65-69세	438,584	505,362	639,385	940,296	641,012	972,877	599,899	836,769
70-74세	225,938	336,354	372,216	621,066	377,843	651,523	348,555	549,813
75-79세	132,699	179,453	259,040	357,106	273,139	390,447	244,779	316,539
80-84세	67,396	76,174	139,394	179,178	158,688	214,273	134,795	159,848
85세 이상	20,329	26,087	61,218	81,021	84,810	125,384	60,658	69,346
계	10,864,317	11,663,606	11,699,752	11,627,385	12,122,774	12,567,241	11,305,225	10,698,882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의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증장기 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원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증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훈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노인일자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1-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공동연구	이삼식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IWC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성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립